



**국어전략**

**중학 2**

**BOOK 3**



정답과 해설

국어전략 **정답과 해설**

## 정답과 해설 이렇게 봐요~

- ✔ 표 안에 있는 **정답**을 빠르게 확인해요!
- ✔ **틀린 답**은 그 이유를 확실하게 짚어 봐요!
- ✔ **서술형**은 평가 기준을 확인하며 스스로 점검해 봐요!
- ✔ 책에 실린 작품들은 **작품 설명**에서 한눈에 살펴봐요!

# 정답과 해설

**BOOK 1** ..... 4

**BOOK 2** ..... 26

### 1주 문학(1)

#### 1일 개념 돌파 전략 1

9, 11쪽

1-2 ②    2-2 ②    3-2 ②    4-2 ①: 1인칭 관찰자  
시점 ③: 3인칭 전지적 시점

**1-2** 시에서 시인을 대신하여 말하는 이를 화자라고 한다. 시인은 화자를 통해 시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

##### 오답 풀이

- ① 화자는 사람일 수도 있고, 동물이나 사물일 수도 있다.
- ③ 화자는 시에 등장하기도 하고 등장하지 않기도 하며, 시인과 일치할 수도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2-2** 제시된 시구에는 ‘그립다’, ‘그리워’, ‘그리워하는’으로 화자의 정서가 시어로 직접 드러나고 있다.

**3-2** 서술자는 작가를 대신하여 이야기를 전달하는 이(나)로, 이야기 안 인물의 행동과 심리, 사건 등을 전달한다(ㄷ).

##### 오답 풀이

- ㄱ. 서술자는 이야기 안에 등장하는 인물일 수도 있고, 이야기 밖에 있는 존재일 수도 있다.
- ㄴ. 서술자의 관점에 따라 이야기의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다.

**4-2** 시점은 크게 1인칭 시점과 3인칭 시점으로 나뉜다. 서술자가 이야기 안에 등장하여 주인공을 관찰하는 시점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이며, 서술자가 이야기에 등장하지 않고 주인공을 포함한 모든 등장인물의 심리를 서술하는 시점은 3인칭 전지적 시점이다.

소설에서 서술자는 인물의 행동, 사건, 심리 등을 전달해.



#### 1일 개념 돌파 전략 2

12~13쪽

1 ②    2 ③    3 ①    4 ④    5 ㄷ, ㄹ

**1** 시 <그림자>의 1행에서 ‘난’이라고 화자가 직접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나’는 꼬마도 될 수 있고, 거인도 될 수 있으며 언제나 너를 따라 함께 논다는 정보를 통해 ‘나’가 그림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화자는 시인과 일치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 ① ‘난 꼬마도 될 수 있고’에서 화자 ‘나’가 겉으로 드러나고 있다.
- ③, ⑤ 화자인 ‘나’는 꼬마도 될 수 있고, 거인도 될 수 있으며 언제나 너를 따라 함께 논다는 것으로 보아 ‘나’가 그림자임을 알 수 있다.
- ④ 화자인 ‘나’는 시구의 내용을 통해 자신이 그림자라는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2** 시 <무지개>에서 진이는 전학을 가면서 슬퍼하고 있고, 화자는 그런 진이가 전학을 가는 장면을 바라보고 있다.

화자의 상황은 시에서 화자가 처해 있는 처지나 형편을 의미해.

화자의 상황을 파악하면 시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



**3** 소설 <동백꽃>의 서술자는 ‘나’로 이야기의 주인공이다. 따라서 이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소설이다.

**4** 소설 <사랑손님과 어머니>의 서술자는 이야기 안에 등장하는 ‘나’로 이야기 안 등장인물인 외삼촌을 관찰하여 서술하고 있다. 또한 외삼촌의 심리를 추측하여 전달하고 있다.

**5** 소설 <홍길동전>은 3인칭 전지적 시점의 소설이다. 3인칭 전지적 시점은 서술자가 이야기 밖에서 사건과 등장인물의 속마음을 모두 전해 주며, 인물의 행동이나 사건을 해설하거나 평가하기도 한다.



**2일 필수 체크 전략 ①**

14~17쪽

- 1 ①      2 ③      3 ③      4 ③

1 이 시의 화자는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나’로, 시장에 간 엄마를 기다리며 혼자 집에서 밤늦게까지 숙제를 했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슬픔을 느끼고 있다.



**작품 설명 기형도, <엄마 걱정>**

갈래	현대시, 자유시
제재	어린 시절의 기억
주제	시장에 간 엄마를 기다리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느끼는 슬픔
특징	① 어른이 된 화자가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림. ② 비슷한 시구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외로운 분위기를 조성함.

2 이 시의 화자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자신을 위해 가방에 몰래 봉어빵을 넣어 준 친구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을 받고 있다.

**작품 설명 복효근,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저녁>**

갈래	현대시, 자유시
제재	봉어빵
주제	친구의 따뜻한 마음과 거기에서 받은 감동
특징	① 어둡고 차가운 분위기에서 밝고 따뜻한 분위기로 바뀜. ② 화자를 열여섯 살의 학생으로도 볼 수 있고 자신의 지난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어른으로도 볼 수 있음.

3 매미는 여름에 높은 가지 위에서 노래하고 있고, 화자인 귀뚜라미는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에서 울고 있다. 귀뚜라미의 울음은 매미 소리에 묻혀 누군가에게 잘 전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귀뚜라미는 가을이 되어 자신

의 울음이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노래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작품 설명 나희덕, <귀뚜라미>**

갈래	현대시, 자유시
제재	귀뚜라미
주제	자신의 노래가 감동을 줄 수 있기를 소망함.
특징	① 귀뚜라미를 사람처럼 표현하여 주제를 강조함. ② 매미와 귀뚜라미를 대조하여 귀뚜라미의 처지와 소망을 드러냄. ③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함.

4 ‘풀’에 대해 화자는 ‘잡초’라고 표현하였고 민지는 ‘꽃’이라고 표현하였다. ‘풀’이라는 같은 대상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관점이 대조적으로 드러나면서 민지의 순수한 성격이 드러난다. 이를 통해 독자의 성찰을 이끌어 내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13~16행의 ‘내 말은 때가 묻어 ~ 흔들려 깨우는 것이었다.’에서 화자가 민지의 말을 듣고 자신을 성찰했음을 알 수 있다.
- ② 화자는 ‘질경이, 나싱개, 토끼풀, 억새’를 풀이나 잡초로 여기며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을 민지가 꽃이라고 말하는 모습을 통해 민지의 순수하고 맑은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 ④ 민지를 바라보는 화자의 따뜻한 시선이 시의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든다.
- ⑤ 민지가 “꽃이야”라고 한 말을 듣고 “그건 잡초야”라고 말하지 않는 화자의 모습에서, 독자의 성찰을 이끌어 내고 있다.

**작품 설명 정희성, <민지의 꽃>**

갈래	현대시, 자유시
제재	풀, 산골에 사는 민지
주제	순수한 민지를 통한 삶의 성찰
특징	① 민지를 만난 일상적 경험을 통한 깨달음을 전함. ② 민지와 화자의 대화를 그대로 제시하여 생동감을 줌.

2일 필수 체크 전략 2

18~19쪽

1 ③      2 ④      3 ⑤      4 ①

1 이 시의 화자는 '나'로, 자신을 '나룻배'에 비유하고 있다. 화자는 시적 대상인 '당신'을 '행인'에 비유하여 '당신'을 향한 자신의 헌신적인 사랑과 절대적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

2 8행의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에서 '당신'을 향한 화자의 절대적인 믿음이 담긴 태도를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에는 '당신'을 '행인'에 빗댄 표현이 드러난다.
- ②, ③ ㉡, ㉢에는 '나'를 대하는 '당신'의 무정하고 무심한 태도가 드러난다.
- ⑤ ㉤에는 '당신'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드러나기는 하지만, '당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절대적인 믿음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작품 설명 한용운, <나룻배와 행인>

갈래	현대시, 자유시
제재	나룻배, 행인
주제	희생과 믿음을 통한 진정한 사랑의 실천 의지
특징	① 화자는 자신을 '나룻배'에 비유하여 '당신'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음. ② 1연과 4연을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나'와 '당신'의 관계를 강조함.

3 '나는 아버지로 섬기는 이라 한즉'에서 화자는 자신과 아무개 씨의 관계를 의원에게 말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1행의 '나는 북관(北關)에 혼자 앓아누워서'에서 화자는 혼자 앓아누워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3~4행에서 화자는 신선 같아 보이는 어느 의원을 만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7행의 '문득 물어 고향이 어디냐 한다'에서 의원이 화자에게 고향을 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8~12행에서 화자가 자신은 평안도 정주가 고향이라고 하자, 의원이 그곳은 아무개 씨 고향이라고 말하고, 다시 화자가 아무개 씨를 아냐고 묻자, 의원은 자신과 아무개 씨가 막역지간이라고 말하고 있다.

4 이 시의 화자는 의원의 손길을 따뜻하게 느끼며 의원의 손길에 고향도 아버지도 아버지의 친구도 다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화자가 고향이 아니라 타향에서 의원의 손길을 통해 고향에 와 있는 것 같은 따스함을 느끼고 있음을 의미한다.

타향에서 의원을 만난 후 고향을 떠올리며 따뜻함, 반가움, 그리움을 느껴요.



작품 설명 백석, <고향>

갈래	현대시, 자유시
제재	고향
주제	고향과 가족을 향한 그리움
특징	① 화자와 의원의 대화 형식으로 시의 상황을 드러냄. ② 인물, 사건, 배경이 제시되어 한 편의 짧은 이야기를 읽는 듯한 느낌을 줌.

3일 필수 체크 전략 1

20~23쪽

1 ④      2 ②      3 ①      4 ③

1 이 글의 서술자는 '나'로 자신의 속마음만 나타내고 있으며, 다른 인물인 점순이의 속마음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너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작품 설명** 김유정, <동백꽃>

갈래	현대 소설
제재	동백꽃
주제	농촌 남녀의 순박한 사랑
특징	① 현재와 과거가 교차되어 이야기가 전개됨. ② 어리숙한 성격의 '나'를 주인공으로 설정하여 글의 해학성을 높임.

2 소설 <사랑손님과 어머니>의 서술자는 ㉠에서 아저씨와 어머니가 성이 났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아저씨와 어머니는 성이 난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느낀 것이며, '나'가 어린아이로서 이들의 심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즉 어린아이인 서술자의 한계가 나타난다.

**오답 풀이**

- ① 아저씨와 어머니는 서로 부끄러워서 얼굴이 붉어진 것이지 화가 나서 붉어진 게 아니므로 서술자인 '나'는 인물의 심리를 정확하게 전하지 못하고 있다.
- ③ 서술자 '나'는 이야기 안에서 등장인물을 관찰하며 등장인물의 이야기를 들려 주고 있다.
- ④ 서술자 '나'는 어린아이로 어른들의 심리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하고 있지 않다.
- ⑤ 서술자 '나'는 자신이 본 대로 추측하여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작품 설명** 주요섭, <사랑손님과 어머니>

갈래	현대 소설
제재	어머니와 사랑손님의 사랑
주제	어머니와 사랑손님의 사랑과 이별
특징	①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어른들의 사랑을 순수하게 그려냄. ② '달걀', '손수건', '꽃', '퐁금' 등의 소재를 활용하여 인물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드러냄.

3 서술자는 '길동은 모두 예견하고 있었다.'에서 길동이라는 인물의 심리를 전하고 있다. 또한 '말을 아무리 채찍질

한들 축지법을 써서 달아나는 길동을 어찌 잡을 수 있겠는가?'에서 군사들이 길동을 잡을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작품 설명** 허균, <홍길동전>

갈래	고전 소설, 한글 소설
제재	홍길동의 영웅적 활약상
주제	불합리한 신분 제도와 사회 현실에 대한 비판, 율도국에서의 이상 실현
특징	① 길동의 활약을 이야기 밖의 서술자가 전달함. ② 길동의 비범한 능력에서 영웅적인 모습이 드러남.

4 이 글은 1과 0 두 서술자가 번갈아 가며 자신의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 두 서술자가 같은 상황을 다르게 보여 주기 때문에 소설에서 진행되는 사건을 다양한 시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작품 설명** 성석제, <내가 그린 히말라야시다 그림>

갈래	현대 소설
제재	사생 대회에서 그림이 뒤바뀐 일
주제	어린 시절의 선택이 삶에 미치는 영향
특징	① '0'과 '1'의 두 서술자의 시점이 교차되면서 사건이 전개됨. ② 같은 사건에 대한 두 인물의 서로 다른 시각이 대조되어 드러남.

3일 필수 체크 전략 2

25쪽

1 ②      2 ①      3 ⑤

1 이 글의 서술자는 ‘나’로 이야기 속에 등장하고 있으며, 부모님이 싸우는 원인과 그들의 속마음을 나름대로 추측하고 있다.

오답 풀이

- ㄴ. 이 글의 서술자인 ‘나’는 부모님의 싸움에 대한 자신의 내면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다.
- ㄷ. 이 글의 서술자인 ‘나’는 부모님의 싸움의 밑바닥에는 아버지의 존재가 있다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추측하여 나타내고 있다.

2 서술자가 이야기 밖에 있고 신과 같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시점은 3인칭 전지적 시점이다. 3인칭 전지적 시점은 서술자가 인물의 행동과 심리를 모두 꿰뚫어 본다.

3 이 글의 작가는 청소년인 ‘나’를 서술자로 설정하여 ‘나’가 사건을 전달함으로써 현대 사회를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아울러 ‘나’가 열일곱 살이 되었을 때 정신적으로 성장한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가족 이기주의의 극복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다.

난 사춘기 청소년이야.  
난 엄마와 아버지의 심리를  
나름대로 추측해.



작품 설명 공선옥, 〈일가〉

갈래	현대 소설
제재	일가 아저씨
주제	일가 친척의 의미가 점점 사라져 가는 현대 사회에 대한 비판과 반성
특징	① 청소년 서술자인 ‘나’가 주인공이 되어 주변 인물들 간에 벌어지는 사건을 관찰하고 전달함. ② 청소년 서술자인 ‘나’의 시각에서 가족 이기주의를 비판함.

4일 교과서 대표 전략 1

26~29쪽

1 ③      2 ⑤      3 ④      4 ⑤      5 ②  
6 ③      7 ⑤      8 ②

1 이 시의 화자는 어른이 된 ‘나’로 시에 드러나 있다.

오답 풀이

- ①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에서 화자가 ‘나’로 드러나고 있다.
- ②, ④ ‘아주 먼 옛날 /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에서 어른이 된 지금, ‘나’가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슬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⑥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에서 화자가 어린 시절에 혼자 빈방에서 엄마를 기다리며 외로움을 느꼈음을 알 수 있고, ‘어둠고 무서워’에서 ‘무서워’라고 직접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2 화자는 엄마를 기다리며 외롭고 무서워했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슬픔을 느끼고 있다. 자신의 어렵고 힘들었던 어린 시절을 방바닥의 차가운 부분을 의미하는 ‘윗목’에 비유하여 안타까움과 서글픔을 표현하였다.

3 이 시의 화자는 동물인 ‘귀뚜라미’이다.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에서 / 숨 막힐 듯, 그러나 나 여기 살아 있다’에서 귀뚜라미가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는 3연에 나타난 화자의 소망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오답 풀이

- ① ‘발길에 눌러 우는 내 울음도’를 통해 화자가 누군가의 발길에 눌러 고통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③, ⑤ ‘높은 가치를 흔드는 매미 소리에 묻혀 / 내 울음 아직은 노래 아니다.’,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에서 / 숨 막힐 듯, 그러나 나 여기 살아 있다 / 귀뚜라미 푸르르 보내는 타전 소리’ 등에서 등 화자인 귀뚜라미의 상황이 나타난다.

4 이 시를 쓴 시인은 인간이 아닌 동물인 귀뚜라미를 화자로 설정하고 있다. 귀뚜라미를 사람처럼 표현하여 고통을 이겨 내고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 있기를 소망하는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5 이 글의 서술자인 ‘나’는 순진하고 어리숙하여 짐순이의 애정을 눈치채지 못한다. ‘나’가 짐순이의 애정 표현을 전혀 모르고 엉뚱하게 행동하여 해학적인 분위기가 나타난다.

**오답 풀이**

- ① '나의 말과 행동으로 보아, '나'는 눈치 없고 순진한 성격임을 알 수 있다.
- ③ 애정 표현에 서투른 사람은 점순이이지만 청소년기의 혼란스러운 마음 상태를 전달하는 것이 이 글의 주목적은 아니다.
- ④ 점순이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나'를 통해 읽는 재미를 주고 두 사람의 사랑을 순수하게 느끼게 한다.
- ⑤ '나의 무뚝뚝한 성격을 통해 해학적 분위기를 만들고 순수함을 느끼게 한다.

- 6 이 글은 '나'를 서술자로 한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소설이다. <보기>는 서술자가 이야기 밖에서 인물의 심리까지 모두 파악하고 있으므로 3인칭 전지적 시점이다. [A]에서 점순이의 마음을 모르고 행동한 '나' 때문에 재미를 느꼈다면 <보기>에서는 그러한 효과가 사라지게 된다.
- 7 이 글은 같은 사건을 겪은 두 인물을 서술자로 설정하였다. 두 서술자는 모두 이야기 안에 등장하는 주인공으로 같은 사건에 대한 자신의 심리를 회상하며 이야기하고 있다.
- 8 0과 1의 서술자가 교차해 서술하는 형식이 아니라, 한쪽의 입장에서만 전달하면 한 인물의 관점만 독자에게 전달되며 한 명의 서술자의 심리만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관점에서 사건을 파악할 수 없게 된다.

**4일 교과서 대표 전략 ②**

30~31쪽

- 1 ⑤      2 ③      3 ①      4 ⑤

- 1 이 시는 어둡고 차가운 분위기에서 밝고 따뜻한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 '어둠이 한기처럼 스며들고', '아무도 없는 집 썰렁한 내 방'에서는 차가움, 외로움, 어두움의 분위기가 드러나고, '온기가 식지 않은 종이봉투', '가장 따뜻했던 저녁'에서는 따뜻함의 분위기가 드러나고 있다.

열여섯살 때 봉어빵을 통해 친구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고 감동을 받았어.



- 2 (나)의 화자인 '나'는 다섯 살 민지가 '잡초'를 보고 '꽃'이라고 말하자, 자신의 말은 때가 묻었고, 민지의 말은 천지와 귀신을 감동시킨다고 말하고 있다. 화자는 순수한 시각을 가진 어린아이인 민지의 눈을 통해,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자신의 때 묻은 삶의 모습을 성찰하고 있다.
- 3 이 글은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어린아이인 '나'가 이야기에 등장하여 주인공인 아저씨와 어머니를 관찰하고 있다.

내 이름은 박옥희고요.  
열여섯살이에요. 주로 어머니와  
아저씨를 관찰해요.



- 4 (나)에서 서술자인 '나'는 어른들의 말과 행동에 담긴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순수한 관점으로 어른들의 세계를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어린 서술자를 통해 어머니와 아저씨의 사랑이 순수하고 아름답게 느껴지게 된다.

**누구나 합격 전략**

32~33쪽

- 1 ④      2 봉어빵      3 ⑤      4 ⑤      5 1인칭 주인공 시점  
6 ⑤      7 ②      8 나도 지금은 막히지 않고 줄줄 외는 주기도문을 글씨 어머니가 막히다니 참으로 우스운 일이었습니다.

- 1 시 <엄마 걱정>의 화자는 아주 먼 옛날의 자신의 유년을 '잊목'이라고 말하면서 힘들었던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있다.
- 2 시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저녁>의 화자는 친구가 몰래 넣어 준 봉어빵을 떠올리며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저녁이라고 말하고 있다.
- 3 시 <민지의 꽃>의 화자는 민지의 말을 듣고 자신의 말은 때가 묻었다면서 자신을 성찰하고 있다.



- 4 시 <귀뚜라미>의 화자는 ‘나’이며, ‘나’는 사람이 아닌 귀뚜라미이다. 귀뚜라미는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울음이 노래가 되어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고 싶다는 소망을 노래하고 있다.
- 5 소설 <동백꽃>은 눈치 없고 어수룩한 ‘나’를 통해 사건이 전달되면서 ‘나’와 점순이 사이의 순박하고 풋풋한 사랑이라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또한 점순이의 마음을 ‘나’가 모르는 채로 사건을 전하면서 해학적인 분위기가 형성된다.
- 6 이 글의 서술자를 ‘점순이’로 바꾸게 되면, 서술자인 점순이가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게 될 것이므로 점순이의 행동 속에 담긴 의도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다.
- 7 소설 <사랑손님과 어머니>는 어린 서술자인 ‘나’의 시선으로 어른들의 세계를 관찰하여 전달하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의 소설이다. 어린아이인 ‘나’는 어머니의 미묘한 감정 변화를 알지 못한 채 눈에 보이는 대로만 이야기하여 독자의 웃음을 일으키고 어른들의 사랑을 순수하게 전달한다.
- 8 어머니는 아저씨를 향한 감정 때문에 혼란스럽고 힘들어서 자신의 마음을 추스르는 과정에서 주기도문의 같은 부분을 반복하고 있다. 이런 어머니의 속마음을 모르는 어린 서술자인 ‘나’는 어머니의 행동을 참으로 우스운 일이라고 생각했다.

창의·융합·코딩 전략 ①

34~35쪽

- 1 슬픔과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음. 2 ④ 3 ④  
4 ③

- 1 1연에는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는 엄마를 홀로 기다리며 외로움과 무서움을 느끼고 있는 화자의 상황이 드러나고 있다. 2연에서는 1연에 나타난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슬픔에 눈물을 흘리는 화자의 상황이 나타나 있다. 특히 2연에 쓰인 ‘온돌방에서 아궁이로부터 먼 쪽의 땅바닥. 불길기 잘 닿지 않아 아랫목보다 상대적으로 차가운 쪽’을 뜻하는 ‘윗목’이라는 시어를 통해 화자는 어린 시절을 차갑고 서러운 시절로 기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슬픔, 안타까움, 서글픔, 서러움’ 등을 넣어 정서나 태도를 씀.	
한 문장으로 씀.	

- 2 ①은 귀뚜라미가 자신의 노래가 누군가의 가슴에 감동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보여 주고 있다. 카드 내용에서는 귀뚜라미의 울음소리가 인간의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말하고 있으므로, 이와 서로 관련 지을 수 있다.
- 3 제시된 시조 <훈민가>를 들을 대상은 농민이다. 양반이 열심히 일하라고 명령하면 거부감이 들겠지만, 자신과 처지가 같은 농민이 함께 일하자고 이야기하면 이를 친숙하고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화자를 농민으로 설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작품 설명 정철, <훈민가>

갈래	평시조, 연시조(16수 중 13수)
제재	농사일
주제	부지런히 일하고 서로 도와가며 살자.
특징	① ‘-자’를 활용해 상대방에게 권유하는 말투를 사용하여 설득력을 높임. ② 농민을 화자로 내세워 말하고자 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전달함.

자료실 시조의 형식

시조의 일반적인 형식에 해당하는 평시조는 3·4조, 4음보를 바탕으로 하여 3장 6구 45자 내외로 이루어진다. 이때 시조의 첫 번째 행을 초장, 두 번째 행을 중장, 세 번째 행을 종장이라고 한다. 각 장이 두 개의 구로 구성되어 있어서 시조 전체는 6구가 되며, 중장의 첫 구는 3음절로 시작하여야 한다는 규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또 두 개 이상의 평시조가 하나의 제목으로 엮여져 있는 시조를 연시조라 한다.

- 4 북어의 아버지는 북어한테 사람한테 잡혀갔을 때 살아남는 방법을 조언하였다. 따라서 화자인 북어는 황태가 되고자 하는 바람 때문이 아니라, 살아남고자 하는 바람 때문에 아버지의 조언대로 행동하였다.

**오답 풀이**

- ① 카드 내용으로 보아, 북어가 살아 있을 때는 명태라고 부르므로, 사람에게 잡혔을 때는 명태이다.
- ② 시의 제목인 '북어'와 시의 화자가 자신은 사람들에게 잡혀가는 존재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화자가 '북어'임을 알 수 있다.
- ④ '입을 크게 벌리고', '눈을 크게 부라리고', '눈을 크게 똑바로 뜨고'로 보아 북어의 입을 벌리고 있고, 눈이 크고 눈을 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카드 내용으로 보아 '북어'는 명태를 잡아 건조한 것을 이르는 말이다. '내가 무섭지요 별별 떨리지요?'에서 죽은 북어가 애처롭고 우스꽝스럽게 허세를 부리는 모습이 드러난다.



**작품 설명 배우식, <북어>**

갈래	현대시, 산문시
제재	북어
주제	부질없는 위협으로 허세를 부리는 태도 비판
특징	① 사물인 '북어'가 화자로 등장함. ② 북어의 심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냄.

**창의·융합·코딩 전략 2**

36~37쪽

5 1인칭 주인공 시점 - 서술자인 '나'가 이야기 안에 등장하여 미옥이에게서 온 편지로 어머니와 갈등하는 중심인물이기 때문이다. 6 그 위엄은 하늘을 찌를 듯하고 그 형세는 더 이상 거칠 것이 없었다. 7 ③ 8 주호

- 5 <일가>의 서술자인 '나'는 이야기 안에 등장하여 여학생 (미옥이)에게서 온 편지 문제로 어머니와 다투고 있는 중심인물이다. 따라서 이 글의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평가 기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1인칭 주인공 시점임을 씀.	
'나'가 주인공으로 사건을 전달하고 있음을 씀.	

- 6 '영상 제작 계획서'를 보면 서술자가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평가를 나타낸 부분에 자막 효과를 사용하겠다고 계획하고 있다. 따라서 ㉠에 들어갈 내용은 서술자가 길동이 이끄는 군대의 위엄과 형세를 평가한 부분이다.
- 7 <내가 그린 히말라야시다 그림>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소설로, 서술자가 이야기 안에 등장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서술한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심리는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한다.
- 8 옥희 어머니는 기차를 타고 떠나는 사랑손님을 마지막으로 배웅하기 위해서 옥희에게 뒷동산에 올라가자고 하였다. <보기>에서는 서술자인 외삼촌을 통해 이러한 이유가 더 상세하게 나타나고 있을 뿐, 그 이유가 달라지지는 않았다.

**오답 풀이**

이 글에서 서술자인 '나'는 옥희였지만, <보기>의 서술자인 '나'는 외삼촌이다. 집을 보고 있으라고 외삼촌에게 일했다는 내용이 <보기>에서 누님이 내게 말했다는 데서 이를 알 수 있다.

보라: 서술자가 외삼촌으로 바뀌면 어린아이인 옥희의 순수한 시선이 나타나지 않게 되고, <보기>에서 외삼촌이 비교적 상황을 합리적으로 추측하는 것을 볼 때 보라가 말한 읽는 재미는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찬우: 이 글은 뒷동산에 올라가려는 어머니의 의도를 알지 못한 채 아저씨가 준 인형을 챙기는 '나'의 모습을 통해 천진난만한 분위기를 나타냈지만, <보기>는 누님의 모습이 왠지 쓸쓸하게 느껴졌다는 표현을 통해 쓸쓸한 분위기가 강조되고 있다.

연경: 이 글에서는 옥희 어머니의 심리가 나타나지 않지만, <보기>에서는 누님이 뒷동산에 올라간 이유가 사랑손님을 마지막으로 배웅하고 싶은 것이라며 옥희 어머니의 심리를 추측하여 독자에게 알려 주고 있다.

2주 문학 (2)

1일 개념 돌파 전략 1

41, 43쪽

1-2 ㄷ    2-2 ㉓    3-2 역설    4-2 ㉔    5-2 ㉑

1-2 시에서 각 행을 세 마디씩 끊어 읽음으로써, 즉 3음보를 반복하면 운율이 형성된다.

운율을 만드는 기본 원리는  
규칙적인 반복이라는 것,  
잊지 마!



2-2 반어를 사용하면 대상을 비판하거나 특정한 내용을 강조할 수 있다. 차가 막히는 상황을 빨리도 간다고 표현하여 차가 막히는 상황을 비꼬거나 강조하고 있다.

반어는 겉으로 드러난  
의미와 표현하려는 의미가  
서로 다르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래서 상황과  
맥락을 고려해 의미를  
해석해야 해.



3-2 역설은 겉보기에는 모순이지만 그 속에 진실을 담고 있는 표현이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는 '지는 것'과 '이기는 것'이 서로 모순이지만, 너그럽게 양보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승리하는 것이라는 진실을 담고 있는 역설이 사용되었다.

역설은 모순된 표현을  
사용한다는 점이  
특징이지.

즉, 역설은  
상반된 어휘나 상황을  
연결하지.



4-2 풍자는 부정적 인물이나 사회의 모습을 비판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표현 방법이다. ㉔는 반어에 대한 설명이다.

5-2 문학 작품의 재구성은 원작의 내용과 표현, 형식, 맥락, 매체 등을 바꾸어 쓰는 것이다.

1일 개념 돌파 전략 2

44~45쪽

1 ㉔    2 ㉔    3 ㉓    4 ㉔

5 갈래(형식)

1 제시된 시 <실비>에서는 각 행이 7자로 반복되며, 같은 위치에서 비슷한 소리가 반복되고, '실비'라는 시어가 반복된다. 또한 '~에 ~내려라.'로 같은 문장 구조가 반복되어 운율이 잘 느껴진다.

2 제시된 노래 <비와 당신>의 4행 '비가 오면 눈물이 나오.'로 보아 화자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㉑은 '당신'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반대로 나타내어 강조한 표현이다.

3 제시된 시 <벌레 먹은 나뭇잎>의 1행 '나뭇잎이 벌레 먹어서 예쁘다'는 벌레 먹은 것을 예쁘다고 하여 언어 표현 그 자체에서 의미가 서로 어긋나는 역설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벌레에게 자신이 가진 것을 베풀 줄 아는 나뭇잎이 아름답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4 제시된 시 <우리말 사랑 1>에서는 '달리기를 하면 발목 뻘까 봐', '찬물로 씻으면 피부병 걸릴까 봐'와 같이 표현하여 우리말인 '달리기', '찬물', '씻다'를 사용하지 않고 외래어나 한자어인 '조깅', '냉수', '샤워'를 사용하는 사람을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5 원작 (가)는 백석의 시 <박각시 오는 저녁>으로 시인이 대상을 운율을 살려 압축적으로 표현한 갈래인데, (나)는 인물, 사건, 배경을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하는 동화 <박각시와 주락시>로 바꾸었으므로, 갈래(형식)를 바꾸어 재구성하였다.



**작품 설명 (가) 백석, <박각시 오는 저녁>**

갈래	현대시, 자유시
제재	시골의 여름 저녁 모습
주제	시골의 아름다운 여름 저녁 풍경,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모습
특징	① 시골의 여름 저녁 모습을 아름답고 섬세하게 묘사함. ② 토속적 소재를 사용하여 계절감과 향토적 정서를 표현함.



**작품 설명 (나) 김기정, <박각시와 주락시>**

갈래	동화
제재	할머니 집을 파는 일
주제	소중한 것을 잊고 사는 현대 사회의 각박한 삶에 관한 성찰과 안타까움
특징	① 백석의 시 <박각시 오는 저녁>을 이야기로 재구성한 작품임. ② 인물들의 대조되는 가치관으로 주제를 드러냄. ③ '현실-환상-현실'의 구조로 사건이 전개됨.

**작품 설명 정호승, <봄 길>**

갈래	현대시, 자유시
제재	봄 길
주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삶의 태도
특징	① '~ 곳에서도 ~이 있다', '스스로 ~이 되어 ~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 이느껴짐. ②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는 역설 표현을 통해 절망적인 상황에도 희망이 있다는 의미를 강조함.

2 이 시에서 화자는 줄곧 '당신'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는 자신의 속마음과 반대로 '잊었노라'라고 표현하고 있을 뿐, 뜻이 모순되고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2일 필수 체크 전략 ①**

46~48쪽

1 ①      2 ⑤      3 ⑤

1 이 시에서는 같거나 비슷한 시어, 시구,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② '곳에서도', '멈추고', '않고', '있다'로 보아 모든 행의 끝부분을 명사형으로 끝맺고 있지 않다.
- ③ 사람이나 사물의 소리를 흉내 낸 말인 의성어는 나타나지 않는다.
- ④ 이 시는 1연 14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⑤ 명령하는 말투인 '보라'는 10행에 한 번만 나타난다.

**작품 설명 김소월, <먼 후일>**

갈래	현대시, 자유시
제재	이별
주제	떠난 임을 잊을 수 없는 마음
특징	① 임을 잊지 못하는 화자의 마음을 '잊었노라'라고 반어로 표현하여 강조함. ② 같은 시어, 비슷한 문장 구조, 3음보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주제를 강조함.

3 ①에는 겉보기에는 모순이지만 그 속에 어떤 진실을 담고 있는 표현인 역설이 사용되었다. ①에서 '독한'과 '아름답다'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하지만 그 속에는 친구의 독한 마음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는 진실이 담겨 있다.

작품 설명 함민복, <독(毒)은 아름답다>

갈래	현대시, 자유시
제재	은행나무 열매, 밤송이, 복어알, 친구
주제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가치 있고 아름답음.
특징	① 대상의 부정적인 특성에서 발견한 가치를 역설을 써서 드러냄. ②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소재를 활용하여 주제를 드러냄.

2일 필수 체크 전략 2

49~51쪽

1 ④      2 ②      3 ②      4 반어      5 ②

6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

1 이 시에서 '걸음걸음'이라는 표현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의성어와 의태어가 일정하게 되풀이되지는 않는다.

오답 풀이

- ① 1연에서 '드리우리다', 2연에서 '부리우리다', 4연에서 '흘리우리다'로 '-우리다'를 반복하여 운율이 느껴진다.
- ② 1연과 4연이 '나 보기가 / 역겨워 / 가실 때에는 / ~리다'로 비슷한 형태가 반복되어 형태적 안정감을 준다.
- ③ '나 보기가 v 역겨워 v / 가실 때에는 v / 말없이 v 고이 보내 v 드리우리다 v'로 세 마디씩 끊어 읽게 되어 운율이 느껴진다.
- ⑤ '나 보기가 역겨워(7자) / 가실 때에는(5자) / 말없이 고이 보내(7자) 드리우리다(5자)와 같이 글자 수를 일정하게 반복하여 운율이 느껴진다.

2 ①은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고 표현하지만 임이 떠나면 많은 눈물을 흘리겠다는 화자의 속마음이 담겨 있다. 이처럼 자신의 속마음과 반대로 표현하는 반어를 사용하여 임을 떠나보내는 슬픔을 강조하고 있다.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눈물을 많이  
흘릴 것입니다.

화자



작품 설명 김소월, <진달래꽃>

갈래	현대시, 자유시
제재	임과의 이별
주제	임을 향한 사랑, 이별의 한과 슬픔의 극복
특징	① 임이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속마음과는 달리 임을 보내 드리겠다고 반어를 사용하여 소망을 강조함. ② 7자, 5자의 글자 수, 3음보, 1연과 4연에서 비슷한 내용을 반복하여 운율이 느껴짐.

3 이 시에서는 '정말', '너는 참 바보다.'와 같은 시어나 시구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4 이 시에서 화자는 착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너'의 긍정적인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 속마음과는 반대로 '너는 참 바보다.'라고 표현하였다.

바르게 살아가는  
너는 참 바보다.

그런 바보 같은  
네가 좋다.



'나'

작품 설명 신형건, <넌 바보다>

갈래	현대시, 자유시
제재	바보 같은 '너'
주제	바르게 살아가는 '너'를 본받고 싶은 마음
특징	① '너는 참 바보다.'를 반복하여 운율이 느껴짐. ② '너'의 모든 모습을 좋아하고 닮고 싶어 하는 '나'의 마음을 반어로 표현하여 '너'의 바른 행동을 강조함. ③ 1연에서 바르게 생활하는 '너'의 행동을 열거한 뒤에 2연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나'의 마음을 드러냄('너는 참 바보다'가 반어 표현임이 드러남).

5 이 시의 화자는 꽃이 피고 진 후 열매를 맺는 자연 현상을 인간의 삶과 연관 지어 화자의 깨달음을 나타내고 있다. 꽃이 피는 것은 인간의 사랑에, 꽃이 지는 것은 인간의 이별에 빚대고 있다. 또한 꽃이 진 후 열매를 맺는 것을 이별 후의 성숙에 빚대고 있다.

- 6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는 '결별'과 '축복'이라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말이 결합되어 삶의 진실을 드러내는 역설이 사용되었다. 역설을 사용하여 참신한 느낌을 주고,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작품 설명 이형기, <낙화>**

갈래	현대시, 자유시
제재	꽃이 지는 현상(낙화)
주제	슬프고 고통스러운 이별을 통해 영혼의 성숙을 이룰 수 있음.
특징	① 꽃이 피고 지는 것이 열매의 결과로 이어지는 자연 현상을, 사랑하고 이별하는 것이 영혼의 성숙을 이룰 수 있다는 인간의 삶과 연관 짓고 있음. ② '결별'과 '축복'이라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말을 결합한 역설을 사용하여 화자의 깨달음을 전함.

**3일 필수 체크 전략 1** 52~55쪽

- 1 ①      2 ④      3 ⑤      4 ⑤

- 1 작가는 ①에서 양반의 아내의 말을 빌려 자신이 진 빚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양반의 무능하고 나약한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작품 설명 박지원, <양반전>**

갈래	고전 소설, 한문 소설, 풍자 소설
제재	양반 신분의 매매
주제	양반들의 무능과 허례허식에 대한 비판
특징	① 조선 후기의 사회적 상황이 잘 드러남. ② 양반의 신분을 사고파는 사건을 통해 양반의 모습을 풍자함.

- 2 종장의 '두꺼비'가 잘난 척하는 모습을 통해 '두꺼비'의 허세를 비판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두꺼비'는 '파리'를 괴롭히고 있으므로 탐관오리이고, '두꺼비'에게 당하고 있는 '파리'는 백성에 해당한다. 또한 '두꺼비'가 '백송골'을 보고 깜짝 놀라 피하고 있으므로 '백송골'은 더 힘이 있는 권력자를 의미한다.  
② '두꺼비'와 '파리'는 각각 탐관오리와 백성을 의미하므로,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 있는 모습은 탐관오리가 백성들을 착취하는 모습에 해당한다.  
③ '두꺼비'가 두엄 아래 자빠지는 모습을 통해 '두꺼비'를 우스꽝스럽게 나타냄으로써 백성을 착취하는 '두꺼비'를 풍자하고 있다.  
⑤ 작가는 '두꺼비'의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나타내어 당시 탐관오리들의 모습을 돌려서 비판하고 있다.

**작품 설명 작자 미상, <두꺼비 파리를 물고>**

갈래	사설시조
제재	두꺼비
주제	탐관오리의 이중성비판
특징	① '파리', '두꺼비', '백송골'의 세 계층을 통해 사회 계층 구조와 비리를 풍자함. ② 탐관오리를 우스꽝스럽게 표현하여 풍자함.

**자료실 <두꺼비 파리를 물고> 현대어 풀이**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 거름 위에 뛰어 올라가 앉아 건너편 산을 바라보니 흰 매가 떠 있는 것을 보고 무서워서 거름에서 뛰어내리다가 거름 아래로 자빠졌구나. 마침 날랜 나뭇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피멍 들 뻔했구나.



- 3 (가)는 서술자가 인물 간의 대화를 제시해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나)는 서술자 없이 지시문과 인물의 대사를 통해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가)와 (나)는 둘 다 문학 작품이므로 작가가 상상하여 창작해 낸 이야기이다.
- ② (가)는 소설, (나)는 드라마 대본으로 둘 다 인물, 사건, 배경을 중심으로 한다.
- ③ 작품의 갈래가 (가)는 소설이며, (나)는 드라마를 촬영하기 위한 대본이다.
- ④ (가)는 소설로 촬영이나 편집과 관련된 용어가 나타나지 않지만, (나)는 촬영을 하기 위한 장면 번호(S#) 등의 용어가 나타난다.

작품 설명 (가) 황순원, <소나기>

갈래	현대 소설
제재	소나기
주제	소년과 소녀의 순수한 사랑
특징	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용이 전개됨. ② 등장인물의 심리가 주로 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남.

작품 설명 (나) 엄일호 각본, <소나기>

갈래	드라마 대본
제재	소나기
주제	소년과 소녀의 순수한 사랑
특징	① 원작 소설 <소나기>를 재구성한 작품임. ② 원작에 없는 다양한 인물과 사건이 추가됨. ③ 소녀의 죽음 이후의 이야기가 그려짐.

자료실 드라마 대본 용어

- S#: 장면 번호
- 대사: 등장인물이 하는 말
- 지시문: 등장인물의 행동을 지시하거나 상황을 설명하는 말

- 4 <흑설 공주>를 쓴 작가는 <백설 공주>를 <흑설 공주>로 재구성함으로써 아름다움에 대한 자신의 다른 관점을 보여 주고 있다.

작품 설명 이경혜, <흑설 공주>

갈래	현대 소설, 개작 동화
제재	흑설 공주
주제	인간은 모두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음.
특징	① 동화 <백설 공주>를 재구성한 작품임. ② 아름다움에 대한 작가의 생각이 드러남.

자료실 원작과 재구성된 작품 비교

- 원작과 재구성된 작품을 비교 감상하는 방법
  - 갈래, 주제, 표현, 형식, 맥락, 매체 등에서 달라진 점을 비교함.
  - 원작을 재구성하는 데 바탕이 된 작가의 관점을 파악함.
  - 재구성된 작품이 담고 있는 가치를 생각함.
- 원작과 재구성된 작품을 비교 감상할 때의 효과
  - 새로운 상상과 가치를 발견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음.
  - 다양한 관점과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음.

3일 필수 체크 전략 2

56~57쪽

- 1 ⑤      2 ④      3 ②      4 ⑤

- 1 이 글의 서술자인 '나'는 주인공인 박 선생님을 관찰하고 있다. '나'는 박 선생님의 외모를 뺨생, 뺨박, 대갈장군 등으로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고 있다. 목소리는 쇠꼬챙이로 찌르는 것처럼 짹짹하다고 표현하였다.
- 2 ①은 대상의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나타냄으로써 대상을 비판하는 풍자가 사용되었다. ④는 자신의 속마음과 반대로 표현하여 의미를 강조하는 반어에 대한 설명이다.

작품 설명 채만식, <이상한 선생님>

갈래	현대 소설
제재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는 박 선생님
주제	광복 전후의 혼란한 상황 속에서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는 인물 비판
특징	① 어린아이인 '나'를 서술자로 설정하여 주인공인 박 선생님을 관찰함. ② 인물의 외모와 행동을 과장하고 우스꽝스럽게 표현함.

풍자는 과장, 왜곡, 비꼬기 등의 방식으로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그려요. 현실을 비판하여 부정적인 현실을 고치고자 할 때 효과적이에요.



3 (나)에도 '사르르', '활짝'과 같은 시어가 사용되었으므로, 의성어나 의태어 표현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고려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가)의 2연 18행의 형식이 (나)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 ③ (가)에 사용된 '~를 들으면 / 내 입에서 나온 ~ 아니더라도'의 문장 구조가 (나)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 ④ (가)는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진 소리'를 소재로 하고 있지만 (나)는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말'로 소재가 바뀌고 있다.
- ⑤ (가)에서는 말이 타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습이 '정을 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나)에서는 말이 타인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모습이 '꽃을 피우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4 (가)에서는 모진 소리가 타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나)에서는 따뜻한 말이 타인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따라서 말이 타인에게 주는 영향을 고려하여 말을 해야 함을 느낄 수 있다.

**작품 설명 (가) 황인숙, <모진 소리>**

갈래	현대시, 자유시
제재	모진 소리
주제	모진 소리는 나와 타인과 세상을 아프게 함.
특징	① 모진 소리가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을 청각적, 촉각적으로 표현함. ② '쿵쿵', '짱'과 같은 말을 사용하여 모진 소리에 상처 받는 마음을 인상적으로 표현함.

**작품 설명 (나) <따뜻한 말>**

갈래	현대시, 자유시
제재	따뜻한 말
주제	따뜻한 말은 나와 타인과 세상을 행복하게 함.
특징	① 원작 <모진 소리>를 모방한 작품임. ② '사르르', '활짝' 같은 말을 사용하여 따뜻한 말 덕분에 마음이 행복해지는 것을 인상적으로 표현함.

**자료실 (가)를 (나)로 재구성한 과정**

어떤 갈래로 쓸 것인가?	원작처럼 시로 쓰자.
어떤 주제를 담을 것인가?	따뜻한 말을 들으면 세상이 따뜻해진다는 점을 전하자.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짜어엉'을 '화알짝'으로 바꾸자.
어떤 형식으로 쓸 것인가?	원작의 구조를 유지하자.

**4일 교과서 대표 전략 1 58~61쪽**

- 1 ①      2 ①      3 ②      4 ⑤      5 ④
- 6 ⑤      7 ⑤      8 ④

- 1 이 글의 제목 '운수 좋은 날'은 겉으로는 돈을 많이 번 날을 의미하지만, 실은 아내가 죽은 가장 불행하고도 운수 나쁜 날을 의미하는 반어 표현이다. 이러한 제목을 통해 아내의 죽음이 지나는 비극성을 강조하고 하층민의 비참한 삶을 강조하고 있다.
- 2 이 글은 아내가 죽는 비극적 결말로 끝이 난다. 김 첨지는 하루 동안 운수 좋은 날을 보냈지만, 집에 돌아와 아내의 죽음이라는 가장 비극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 따라서 ㉠은 김 첨지가 가장 불행한 날을 맞이했음을 반어로 표현하여 결말의 비극성을 강조하고 있다.



**작품 설명 현진건, <운수 좋은 날>**

갈래	현대 소설
제재	김 첨지의 하루
주제	일제강점기 도시 하층민의 가난하고 비참한 삶
특징	① 일제강점기의 하층민의 삶을 사실적으로 표현함. ② 반어 표현이 쓰인 제목을 사용하여 비극성을 강조함.

- 3 글쓴이는 처음에는 인디언들이 침묵하여 자신에게 반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침묵이 말보다 상대방을 더 잘 느낄 수 있는 방법임을 깨닫게 되었다.
- 4 '모국어'와 '침묵'의 사전적 의미로 보아 '모국어'라는 말과 '침묵'이라는 말은 서로 모순됨을 알 수 있다. ㉠에는 겉보기에는 모순이지만 그 속에 어떤 진실을 담고 있는



역설을 사용하여 전하고자 하는 바를 인상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작품 설명 류시화, <나의 모국어는 침묵>

갈래	현대 수필, 경수필
제재	침묵, 언어
주제	침묵의 진정한 의미
특징	① 글쓴이가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깨달음을 전함. ② 역설 표현이 드러난 인디언의 말을 인용하여 글쓴이가 전하고자 하는 바를 인상 깊게 전달함.

5 두 번째 양반 매매 증서에는 양반이 부당한 특권을 누리면서 평민들에게 횡포를 일삼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작가는 이러한 양반의 부정적인 모습을 풍자를 사용하여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6 ㉠에서 부자는 부당한 특권을 누리며 횡포를 일삼는 부도덕한 양반의 모습이 도둑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여 '도둑놈'이라고 표현하였다.



7 (가)의 놀부는 도움을 청하는 흥부에게 모진 소리를 하며 몽둥이로 때리는 것으로 보아, 재물에 욕심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나)의 놀부는 동생이 스스로 자립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일부러 모진 소리를 하고 있다.

8 (나)에서는 놀부가 흥부를 위해 일부러 모진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흥부가 자꾸 타인에게 의지만 하고 스스로 일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가)와 달라진 내용으로 (나)의 특징을 나타낸다. 즉 (나)의 작가는 놀부의 모습을 통해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개척하는 삶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작품 설명 (가) 작자 미상, <흥부전>

갈래	고전 소설
제재	흥부, 놀부
주제	형제간의 우애, 권선징악
특징	① 흥부가 착한 마음씨를 가져 복을 받는 인물로 그림. ②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게 된다는 권선징악의 주제를 담음.

작품 설명 (나) 류일운, <놀부전>

갈래	현대 소설, 개작 동화
제재	흥부, 놀부
주제	형제간의 우애
특징	① 고전 소설인 <흥부전>을 재구성한 작품임. ② 흥부를 의존적이고 무능한 인물로, 놀부를 합리적이고 배려심이 많은 인물로 그림. ③ 흥부의 자립을 돕는 놀부의 모습을 통해 형제간의 우애를 전달함.

자료실 원작 <흥부전>과 재구성된 작품 <놀부전> 비교

	<흥부전>	<놀부전>
인물의 성격	흥부는 놀부에게 의지하고, 놀부는 욕심이 많음.	흥부는 놀부에게 의지하고, 놀부는 동생이 스스로 돈을 벌 수 있게 하려고 함.
표현의 특징	문장이 길고 운율이 느껴짐.	문장이 짧고 운율이 느껴지지 않음.

4일 교과서 대표 전략 2

62~63쪽

1 ㉮ 2 ㉰ 3 ㉮ 4 ㉰ 5 ㉰

1 시를 읽을 때 운율이 느껴지면 읽는 재미가 있고 화자의 정서나 주제를 강조하고, 형태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효과가 있다.

오답 풀이

- ① 운율은 리듬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음악을 듣는 듯한 느낌을 준다.
- ② 운율을 통해 임과의 이별이라는 슬픈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 ③ 첫 연과 마지막 연을 유사하게 반복하는 수미상관을 사용함으로써 시에 구조적인 안정감을 주고 있다.
- ④ 시의 반복적인 리듬감을 통해 임을 떠나보내는 화자의 슬픔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2 ㉰에는 속마음과는 반대되게 표현한 반어를 사용하여 '나'의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

3 ㉮은 슬픔이나 절망에 처하지 않은 사람들은 희망이나 꿈을 찾지 않기 때문에 암담하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의미를 '대낮'과 '어둡다'라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말을 결합한 역설을 사용하여 강조하고 있다.

작품 설명 정진규, <별>

갈래	현대시, 자유시
제재	별
주제	힘겨운 삶 속에서 볼 수 있는 희망과 꿈의 가치
특징	① 같은 시어,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이 생김. ② 상징을 사용하여 희망과 꿈의 의미를 강조함. ③ 역설 표현을 사용하여 주제를 강조함.

- 4 원작 (가)는 소설로, 서술자가 인물의 행동을 서술하고, 인물의 대화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재구성된 작품 (나)는 드라마 대본으로 장면 번호, 지시문, 대사로 구성되며, 소설에서의 인물의 대화가 대사로 제시된다.
- 5 (가)에는 소녀의 죽음을 알게 된 소년의 태도가 나타나 있지 않지만, (나)에는 '불안정하게 돌아가는 눈동자'나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는다.'를 통해 소년의 불안감과 충격의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소나기>



소설

재구성



드라마

소설로 읽어서  
잘 아는 내용인데  
다른 매체를 통해 보니  
새롭게 느껴지네.



누구나 합격 전략

64~65쪽

1 ㄱ 2 반어 3 ㉮ 4 ㉰: 양반 ㉮: 풍자  
5 ㉰ 6 아름다움 7 ㄴ

1 (가)와 (나)는 모두 각 행을 세 마디로 끊어 읽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한 행이 세 마디로 끊어 읽히므로 3음보가 반복된다.

- 2 제시된 시에서는 ‘너’가 좋은 아이임을 ‘너는 참 바보다.’, ‘너는 / 정말 정말 바보다.’라고 반대로 표현하였다. 이와 같이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반대로 나타내어 강조하는 표현 방법은 반어이다.
- 3 ㉠~㉣에는 겉으로 모순되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삶의 진실을 담고 있는 역설이 사용되었다.
- 4 <양반전>의 풍자 대상은 양반으로, 양반의 부정적인 모습을 과장하고 우스꽝스럽게 그려 비판함으로써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 5 제시된 사설시조에서 파리를 물고 있던 두꺼비가 백송골을 보고 무서워서 도망치다 두엄 아래에 자빠지는 모습과 허세를 부리는 모습을 통해 두꺼비를 풍자한다. 이때 ‘파리’는 힘없는 백성을, ‘두꺼비’는 탐관오리를, ‘백송골’은 더 힘이 있는 권력자를 상징한다.
- 6 ‘혹설 공주’는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각각 아름다움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작가는 원작과는 다른 아름다움에 대한 관점을 보여 주기 위해 결말을 바꾸었음을 알 수 있다.
- 7 제시된 글은 소설 <소나기>를 드라마 대본으로 재구성한 작품이다. 드라마 대본에서는 기본 단위인 장면 번호로 장면을 구분하고, 서술자 없이 대사와 행동(지시문)으로 이야기를 전개한다.

창의·융합·코딩 전략 ①

66~67쪽

- 1 ㉠ 2 ㉡: ‘당신’을 잊을 수 없다. ㉢: 표현하려고 하는 내용을 실제 의미와는 반대되게 표현한다. 3 ㉣
- 4 역설 - 아홉은 미래의 꿈과 가능성의 수이기 때문에 열보다 더 크다.

- 1 시 <새로운 길>에서는 1연과 5연을 반복하여(수미상관) 운율을 느낄 수 있다. 또 2연과 4연에서 같은 단어인 ‘길’, ‘도’를 반복하여 운율을 느낄 수 있다.

작품 설명 운동주, <새로운 길>

갈래	현대시, 자유시
제재	길
주제	언제나 새로운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
특징	① 1연과 5연을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함. ② 같은 단어,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함. ③ 상징적 소재를 사용하여 미래 지향적인 삶의 자세를 표현함.



- 2 ‘잊었노라’는 화자가 자신의 속마음과 반대로 표현한 것이므로, 화자의 속마음은 ‘당신을 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자신의 속마음과 반대로 나타내어(반어를 사용하여) 애뜻하고 간절한 심정을 강조한다.

평가 기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잊었노라’에 담긴 화자의 속마음을 10자 이내의 한 문장으로 씀.	
‘반어’의 개념을 반대라는 말을 넣어 30자 이내의 한 문장으로 씀.	

- 3 ‘복어알을 먹으면 죽는다’는 것은 복어알에 대한 일반 상식을 말한 것으로 화자가 자신의 생각을 반대로 나타낸 것이 아니다.

오답 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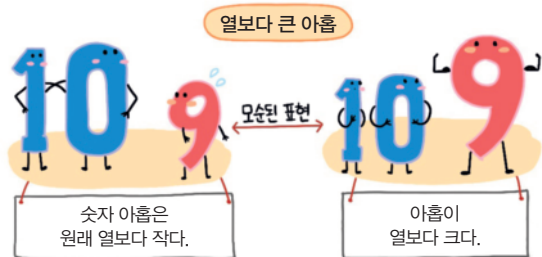
- ① 카드 내용으로 보아 복어의 독은 알과 새끼를 외부의 적에게서 지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독을 통한 ‘복어의 사랑’은 자식을 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② 복어의 독이 새끼를 향한 것처럼 친구의 독한 마음도 자식을 위해 술을 끓은 것이다. 따라서 두 마음은 자식을 위한 부모의 사랑이라는 같은 의미를 지닌다.
- ③ 4연에서 화자는 ‘친구의 독한 마음’을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는데, ‘복어의 독’ 역시 같은 의미이므로 아름다운 것이라 할 수 있다.
- ⑤ 남을 해하는 독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모순된 표현이지만, 이를 통해 ‘부모의 사랑’이라는 진실을 전하고 있다.





- 4 제목 '열보다 큰 아홉'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 표현이 사용되었다. 하지만 글쓴이는 이러한 모순된 표현을 통해 아홉은 미래의 꿈과 가능성을 담고 있는 수임을 강조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제목에 사용된 표현 방법이 '역설'임을 씀.	
'아홉이 미래의 꿈과 가능성의 수'라는 글쓴이의 생각을 한 문장으로 씀.	



작품 설명 이문구, <열보다 큰 아홉>

갈래	현대 수필
제재	숫자 열과 아홉
주제	숫자 아홉이 상징하는 의미, 무한한 꿈과 가능성을 지닌 청소년의 가치와 소중함
특징	① 숫자 열과 아홉을 비교와 대조하여 설명함. ② 다양한 예를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도움. ③ '열보다 큰 아홉'이라는 역설 표현을 사용하여 주제를 강조함.

창의·융합·코딩 전략 2

68~69쪽

- 5 지금 대낮인 사람들은 어둡다 6 ② 7 풍자 8 ②

- 5 '지금 대낮인 사람들은 어둡다'에는 겉으로 봤을 때 앞뒤가 이치에 맞지 않는 내용으로 역설이 쓰였다. 화자는 '지금 대낮인 사람들'은 현재의 삶에 안주하여 희망과 꿈을 찾지 않기 때문에 '어둡다'라고 표현하여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꿈을 꿀 수 있다는 주제를 강조하였다.
- 6 제시된 글의 서술자인 '나'가 박 선생님의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나'가 대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7 제시된 사설시조는 두꺼비를 우스꽝스럽게 묘사하여 대상을 비판하고 있으며, <보기>에서 말한 찰리 채플린 영화는 자신의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나타냄으로써 당시의 사회를 비판하고 있다. 이렇듯 우스꽝스럽게 나타내는 방식을 통해 대상을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표현 방법을 '풍자'라고 한다.
- 8 (가)와 (나) 모두 떠나는 임에 대한 원망을 직설적으로 나타낸 부분은 없다.

오답 풀이

- ① (나)의 첫 부분을 보면 (가)의 1연과 4연의 내용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떠나는 이별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 ④ (나)는 '사랑 그 아픔이 너무 커 숨을 쉴 수가 없어'라는 표현을 통해 임을 떠나보내는 화자의 아픔을 직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 ⑤ (나)는 '그대 행복하길 빌어 줄게요'라는 표현을 통해 자신을 떠나는 임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있다.

신유형 · 신경향 · 서술형 전략

72~75쪽

1 ㉓      2 ㉑: 까마귀 ㉒: 백로    3 (가)와 <보기>는 서술자가 모두 이야기 안에 '나'로 등장하므로 1인칭 시점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4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여 인물의 행동이나 사건을 평가하기      5 ㉓      6 ㉑  
7 당시 관리들의 부패한 모습을 풍자를 사용하여 비판하기 위해서이다.      8 풍자하는 대상(부패에서 식사하는 사람들)을 우스꽝스럽게 그려 효과적으로 비판할 수 있다.

- 1 제시된 시의 화자는 의원이 아버지의 친구 또는 아버지처럼 섬기는 이의 친구와 아는 사이라는 것을 알고 의원을 통해 고향과 가족의 따스한 정과 친근함을 느끼고 있다.
- 2 (가)의 화자는 '까마귀'는 백로를 더럽히는 존재로 부정적으로 보고 '백로'는 희고 깨끗한 존재로 긍정적으로 본다. 반면에 (나)의 화자는 '까마귀'는 검은 겹지만 속은 검은 존재로 긍정적으로 보고 '백로'는 검은 겹지만 속은 검은 존재로 부정적으로 본다.

작품 설명 (가) 정몽주의 어머니, <까마귀 싸우는 골에>

갈래	평시조
제재	까마귀와 백로
주제	싸움을 일삼는 무리들과 어울리지 말기를 당부함.
특징	① 상징과 대조 표현으로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냄. ② 사회가 혼란스러웠던 고려 말에 정몽주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올바르게 행동하라고 당부하기 위해 씀.



작품 설명 (나) 이직, <까마귀 검다 하고>

갈래	평시조
제재	까마귀와 백로
주제	겉으로는 올바른 척하지만 양심이 없는 존재를 비판함.
특징	① 상징과 대조 표현으로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냄. ② 이성계를 도와 조선 개국을 도운 문인이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 씀.

- 3 (가)와 <보기>에는 '나'라는 서술자가 나타나 있어 둘 다 1인칭 시점임을 알 수 있다. 단, (가)에는 '나'가 주인공이어서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 <보기>는 '나'가 주인공인 어머니를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평가 기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두 작품에 나타난 시점을 씀.	
두 작품에 나타난 시점이 공통된 이유를 씀.	

- 4 ㉒은 질문의 형식을 통해 길동은 축지법을 쓰기 때문에 기병들이 아무리 말을 채찍질해도 길동을 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서술자가 이야기 안에 직접 개입하여 인물과 사건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여 인물의 행동이나 사건을 평가한다고 씀.	
문맥에 맞게 씀.	

- 5 ㉑에는 화자의 속마음과 반대로 표현한 반어가 쓰였다. 임이 떠나면 매우 슬프고 괴로워 눈물을 흘릴 것이라는 마음을 반대로 표현하여 임을 배려하려는 화자의 자세를 강조하였다. 반어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화자의 진짜 속마음을 추측하는 재미가 줄어들게 된다.

오답 풀이

- ① <보기>의 문장과 ㉑은 모두 슬픈 분위기가 느껴진다.
- ②, ③ ㉑은 반어를 사용하여 임이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화자의 속마음과 반대로 표현한다.
- ④ ㉑에만 느낄 수 있는 운율의 효과에 대한 설명이다.
- 6 '모국어'는 '여러 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에서, 자기 민족의 언어를 국어 또는 외국어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을 뜻하고, '침묵'은 '아무 말도 없이 잠잠히 있음. 또는 그런 상태'를 뜻한다. '모국어'와 '침묵'의 사전적 의미로 보아 ㉑에는 앞뒤가 모순된 표현을 사용하여 전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역설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에서 인디언들은 자신들의 언어에서 침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을 뿐, 침묵 대신 언어로 소통하는 글쓴이를 비판하고 있지는 않다.

- 7 제시된 글에서는 암행어사 출두에 허둥대며 도망가는 관리들의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그려 당대 변학도를 포함한 부패한 관리들을 비판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풍자의 대상으로 '부패한 관리'들을 씀.	
풍자를 사용한 의도를 '풍자'를 넣어 한 문장으로 씀.	

**작품 설명** 작자 미상, <춘향전>

갈래	고전 소설
제재	관리들의 부정부패, 몽룡과 춘향의 사랑
주제	탐관오리에 대한 응징, 남녀 간의 사랑
특징	① 판소리로 불리다가 소설로 정착한 작품으로, 문장이 길고 운율이 느껴짐. ② 서술자가 개입하여 인물과 사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드러냄.

- 8 ㉠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찾아본 '호텔 뷔페 빵 뽑기 전략'에 따라 줄지어 움직이며 음식을 먹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하여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그리고 있다. 이렇듯 풍자를 사용하여 뷔페에서 자신의 능력치 이상으로 과도하게 음식을 먹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글쓰기가 비판하는 대상을 포함하여 씀.	
풍자의 표현 효과로 부정적 대상을 효과적으로 비판한다고 씀.	

**작품 설명** 이기호, <뷔페들 다녀오십니까>

갈래	현대 수필, 중수필
제재	뷔페에 다녀온 사람들
주제	풍성해 보이지만 헛헛함만 주는 뷔페 음식을 조금이라도 더 먹으려고 헛된 노력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
특징	① 뷔페에서 보이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새로운 시선으로 풍자함. ② 뷔페에서 식사하는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우스꽝스럽게 표현함.

**적중 예상 전략 | 1회**

76~79쪽

- 1 ③      2 ⑤      3 ①      4 ②      5 민지의 순수함을 지켜 주고 싶은 마음 때문이다./세상의 때가 묻은 자신의 생각이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6 ②      7 ③  
8 ⑤      9 서술자가 이야기 밖에 있고, 인물의 감정을 전달하고 있지 않다.

- 1 (가)와 (나)의 화자는 모두 작품에 등장하는 '나'로 사람이다. (가)의 화자는 어른이 된 '나'로 외롭고 힘들었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고 있다. (나)의 화자는 열여섯 살의 '나', 또는 어른이 된 '나'로 친구와의 따뜻한 기억을 회상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가)와 (나)의 화자는 둘 다 시 속에 '나'로 나타나 있다.  
② (가)의 화자는 어른이 된 '나', (나)의 화자를 어른이 된 '나'로 볼 때, 둘 다 과거를 회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나)의 화자인 '나'는 친구가 붕어빵을 가방에 몰래 넣어 준 기억을 떠올리고 있다.  
⑤ (가)의 화자는 1연에서 외로웠던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고 있다. (나)는 1~3연에서 '어둠이 한기처럼', '쓸렁한'이라는 표현으로 어둡고 차가운 정서가 드러나고 있다.
- 2 (가)의 화자는 엄마를 기다리며 외롭고 무섭고 슬펐던 어린 시절을 '윗목'에 빗대어 표현하며 눈시울을 붉히고 있으므로, 어린 시절에 대해 서글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윗목'은 '온돌방에서 아궁이로부터 먼 쪽의 방바닥 불길에 잘 닿지 않아 아랫목보다 상대적으로 차가운 쪽.'이라는 뜻이다.
- 3 (가)의 시인은 화자를 '귀뚜라미'로 내세워 귀뚜라미가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존재임을 드러내고 화자의 어려운 처지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외받는 처지에 놓인 이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고 있다.
- 4 ㉠은 귀뚜라미와 같은 연약한 존재가 발길에 눌러 우는 소리이므로 '힘든 상황에서 나오는 소리'이고, ㉡은 누군가의 마음에 울림을 주는 노래이므로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소리'이다.
- 5 (나)의 화자는 민지가 잡초를 보고 꽃이라고 말하자, 그런 민지의 순수한 모습에 감동을 받았고, 자신의 때 묻은 생각을 부끄러워하여 '그건 꽃이 아니라 잡초야.'라는 말을 못하였다.

평가 기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민지의 순수함을 지켜 주고 싶은 마음 때문이라고 씀. (세상의 때가 묻은 자신의 생각이 부끄러웠기 때문이라고 씀.)	
한 문장으로 씀.	

- 6 이 글의 서술자는 이야기 안에 등장하는 '나'이다. '나'는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자신의 눈을 통해 보이는 대로 이야기를 전달한다.
- 7 (나)는 서술자가 '나'로 자신 이외의 인물의 심리는 전달하지 않아서 독자가 추측해야 한다. 반면에 <보기>의 서술자는 이야기 밖에 있는 서술자로, 모든 인물의 심리를 꿰뚫어 보고 전달한다.
- 8 (나)에서 0의 '나'는 '장원'이라는 종이 붙은 그림이 자신의 그림이 아닌 것을 알고 난 후, 가슴이 떨려서 두 손으로 가슴을 가리며 사방을 둘러보고 있다. 따라서 장원을 받은 그림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가)의 1문단의 '나는 '어릴 때는 부유한 집안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딸로 사랑을 받으며 자랐고'에서 알 수 있다.
- ② (가)의 2문단의 '나 자신의 실수 때문에 못 받은 거니까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지만'에서 자신의 그림으로 다른 사람이 상을 받았음을 알았고, (가)의 3문단의 '그때 나를 스쳐 가던 그 아이, 그 아이의 표정 때문인지도 몰라'에서 그 다른 사람이 0의 '나'임을 알았음을 알 수 있다.
- ③ (가)의 1문단의 '나는 한 번도 상 같은 건 받아 본 적 없어'와 2문단의 '그렇지만 단 한 번 상을 받을 뻔한 적이 있지'에서 알 수 있다.
- ④ (나)의 2문단의 '아버지가 사 준 내 오래된 크레파스에는 진작에 떨어지고 없는 화색이 히말라야사다 가지 끝 앞부분에 살짝 칠해져 있는 그림이었어'에서 알 수 있다.

- 9 <보기>에서는 등장인물이 0의 '나'에서 '백선규'라고 지칭되고 있으며 서술자가 이야기 안에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3인칭 시점이다. 또 인물의 내면을 서술하지 않고 행동만을 전달하고 있으므로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바뀌었다.

평가 기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서술자가 이야기 밖에 있음을 씀.	
인물의 감정을 전달하고 있지 않음을 씀.	

**적중 예상 전략 | 2회**

80~83쪽

- 1 ⑤      2 ③      3 ②      4 ②      5 둘 다 걸  
보기에는 모순되지만 그 속에 중요한 사실이나 진리를 담은 표현  
인 역설을 사용하였다.      6 ②      7 ②      8 ④  
9 ③      10 자신의 힘으로 성실하게 노력해서 얻은 성공  
이 가치 있다./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삶  
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

- 1 <보기>는 산문이고, (가)는 시이다. (가)는 같은 단어, 같은 문장 구조, 1연과 5연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이처럼 (가)는 다양한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화자의 의지와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⑤는 비유의 효과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가)는 '길', '도'의 반복, '~도 가고 ~도 같'의 비슷한 시구의 반복, '~를 ~(해)서 ~(으)로', '~가 ~(하)고'의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 1연과 5연을 반복하여 운율이 느껴진다.

- 2 (나)에 나타난 '너'는 바르게 살아가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에 대해 화자는 '너'를 본받고 싶어서 '너'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있다. 따라서 (나)의 주제는 '바르게 살아가는 '너'를 본받고 싶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다.

- 3 (가)는 각 행의 끝에 '-면', '있었노라'를, (나)는 각 행의 끝에 '도', '있다', '-고'라는 같은 시어(단어)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⑤ (가)에만 해당한다.  
③ (가), (나)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나)에서 '봄 길'이라는 시어가 계절감을 드러내고 희망적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 4 ㉠은 먼 훗날까지 '당신'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할 화자 자신의 마음을 반대로 표현한 말이다. 화자는 '당신'에 대한 자신의 마음, 즉 그리움을 강하게 나타내기 위해 반어를 사용하였다.

- 5 ㉡과 <보기>의 밑줄 친 표현은 모두 이치에 맞지 않는 모순된 표현으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은 절망적인 상황에도 희망이 있음을 말하고,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은 남을 위해 희생하기 때문에 '나뭇잎이 벌레 먹어서 예쁘

다'고 말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앞뒤의 내용이 맞지 않는다'와 '사실이나 진실'을 포함하여 역설이 사용되었다고 씀.	
한 문장으로 씀.	

- 6 이 글에서는 양반의 무능함과 부도덕함을 풍자의 방법으로 비판하고 있다.
- 7 작가는 (가)에서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양반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고, (나)에서 양반이 신분을 이용해 횡포를 부리는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양반전)에서 풍자의 대상은 양반이야. 양반이 무능하면서 부당한 특권을 누리고 횡포를 부리기 때문이야.



- 8 (가)는 거울의 말에 대한 흑설 공주의 답변을 통해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갖고 있다는 주제(가치)를 전하고 있다. 이는 원작인 <백설 공주>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 9 “그러다 굶어 죽으면 어떡해요?”라는 놀부 아내의 말로 보아 놀부 아내는 원작과 달리 다른 사람을 걱정하는 인물로 성격이 바뀌었다.

**오답 풀이**

- (나)는 고전 소설인 <흥부전>의 주제를 바꾸어서 만든, 재구성된 작품이다.
- <흥부전>의 주요 인물이었던 인물들이 재구성된 작품 (나)에도 그대로 등장하고 있다.
- <흥부전>에서는 놀부가 심술궂어 흥부를 내쫓아 권선징악(착한 일을 권하고 악한 일을 징계함.)이라는 결과로 사건이 전개되었고, (나)에서는 놀부가 흥부가 스스로 돈을 벌 수 있게 하려는 이유로 흥부를 내쫓기 때문에 사건이 다르게 전개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 <흥부전>에서의 놀부는 재물에 욕심이 많지만, (나)에서의 놀부는 스스로 일할 생각을 하지 않는 흥부를 깨우쳐 주기 위해

흥부를 모질게 내쫓으므로 긍정적인 인물로 그리고 있다.

- 10 원작 <흥부전>에서는 흥부가 박에서 나온 재물 때문에 부자가 되지만, (나)에서는 흥부가 바가지를 팔아서 부자가 된다. 작가는 오늘날의 가치관에 미루어 현실적으로 공감되고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원작을 새롭게 재구성하였다.

평가 기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스스로 노력함'과 같은 의미를 담아 작가가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을 씀.	
한 문장으로 씀.	

문학 작품의 재구성은 원작의 일부를 변형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작품을 창조하는 것이다.





### 1주 문법

#### 1일 개념 돌파 전략 1

7, 9쪽

- 1-2 ①    2-2 ②    3-2 ②    4-2 ①  
5-2 모아쓰기

**1-2** 모음 ‘니’는 단어의 첫음절에 올 경우에는 [니]로만 발음한다. 따라서 ‘의사’는 [의사]로 발음한다.

**오답 풀이**

- ② 토의: 단어의 둘째 음절에 오는 ‘니’는 [니]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므로, ‘토의’는 [토의] 또는 [토이]로 발음한다.
- ③ 형의: 조사 ‘의’는 [의]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므로 [형의] 또는 [형에]로 발음한다.

**2-2** ‘웃’의 받침 ‘츠’은 [치]으로 발음하므로, [웁]으로 발음한다.

**3-2** ‘되-’가 문장을 끝맺는 역할을 할 때는 ‘되어’로 쓰고, ‘돼’로 줄여 써야 한다. 따라서 ②는 ‘되었다’나 ‘됐다’로 써야 한다.

**4-2** 담화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주고받는 발화의 연속체를 뜻한다.



**5-2** ‘하늘’과 같이 우리말은 자음자와 모음자를 합쳐 음절 단위로 모아쓰는 방식으로 표기한다.

#### 1일 개념 돌파 전략 2

10~11쪽

- 1 ⑤    2 ④    3 ③    4 ③    5 ⑤

**1** 첫소리가 자음인 음절의 ‘니’는 [니]로만 발음하므로 ‘띠엄띠엄’은 [띠엄띠엄]으로만 발음한다.

**오답 풀이**

- ① 첫소리가 자음인 음절의 ‘니’는 [니]로만 발음한다.
- ②, ③ ‘의’가 단어의 첫음절에 올 때는 [의]로 발음하며, 단어의 둘째 음절과 그 뒤 음절에 오는 ‘의’는 [의]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 ④ 조사 ‘의’는 [의]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에]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2** 겹받침 ‘츠’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아’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안자]로 뒤에 있는 자음 ‘츠’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3** 학생이 수업에 지각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담화이므로 선생님의 “지금 몇 시니?”라는 말은 수업에 늦으면 안 된다는 질책의 의미를 담고 있다.



**4** 가획자는 기본자보다 소리가 세짐에 따라 기본자에 획을 더하여 만든 글자이다. 따라서 가획자 ‘ㄷ, ㅌ’은 기본자 ‘ㄴ’보다 소리가 세다.

**5** 한글은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소릿값을 가진 글자이다. 글자 하나하나가 의미를 가지는 문자는 한자 같은 글자이다.

**자료실 한글의 창제 정신**

자주정신	우리나라 말이 중국 말과 다름을 알고 우리나라 말에 맞는 문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애민 정신	문자로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하는 백성들의 고통을 인식하고 이를 가엾게 여김.
실용 정신	누구나 쉽게 외워서 늘 편히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드려고 함.

2일 필수 체크 전략 ①

12~15쪽

1 ⑤      2 ②      3 ②      4 ③

1 '띄어쓰기'는 [떠어쓰기]로만 발음한다.

오답 풀이

'주의'는 [주의] 또는 [주이]로 발음한다.  
'친구의'는 [친구의] 또는 [친구에]로 발음한다.

2 흡받침 'ㅍ'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 '이'와 결합한 경우에는 받침을 제 소릿값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하므로 [무르피]가 맞는 발음이다.

오답 풀이

①, ③, ④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 '을', '에'와 결합한 경우이다.  
⑤ 모음으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 '아래'와 결합한 경우이다.

3 겹받침 'ㅃ'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 '은'과 결합한 경우이므로 뒤엣것(ㅁ)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살:믄]으로 발음한다.

4 '바래다'는 '별이나 습기를 받아 색이 변하다.'를 의미하고, '바라다'는 '생각이나 바람대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다.'를 의미하므로 '바래다'를 써야 한다.

오답 풀이

① 단어의 원래 형태(시들다)를 밝혀 '시들'으로 써야 한다. →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 것이 원칙임. → 용언 '시들다'의 어간은 '시들-'이므로 명사형 어미 '-ㅁ'을 붙여 '시들'이 올바른 표기이다.  
② '뵈(다)+았던'의 준말은 '뵈었던'이다. '뵈었던'은 틀린 표기이다.  
④ '안'은 '아니'의 준말이고, '않-'은 '아니하-'의 준말이다.  
⑤ '왓지'는 '왜인지'의 준말이다.

2일 필수 체크 전략 ②

16~17쪽

1 ③      2 ①      3 ⑤      4 ①

1 '무늬'의 '니'는 자음 'ㄴ'을 첫소리로 가진 음절에 오므로 [ ]로 발음해서 [무니]로 발음한다.

2 '술'의 받침 'ㅌ'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ㄷ]으로 발음하고, '숲'의 받침 'ㅍ'은 [ㅂ]으로 발음한다.

오답 풀이

② 뒹대[뒹따], 키읓[키읓] → [기]  
③ 히읃[히읃], 잇대[잇따] → [ㄷ]  
④ 짚대[짚따], 외곶[외곶] → [ㄹ]  
⑤ 말대[말따], 활대[활따] → [ㄹ]

3 '겉옷을'은 흡받침 '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 '옷'이 결합되어 'ㅌ'이 대표음 [ㄷ]으로 바뀌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간다. 또 흡받침 '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을'이 결합되어 'ㅌ'은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가서 [거도슬]로 발음한다.

4 동사나 형용사를 소리 나는 대로만 적으면 그 뜻이 얼른 파악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어간과 어미를 구별하여(형태를 밝혀) '보고 싶어요'로 적어야 그 뜻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단어를 올바르게 발음하고 표기해야 해.



3일 필수 체크 전략 ①

18~21쪽

1 ④      2 ④      3 ②      4 ③

1 담화에서 말하는 이는 듣는 이가 되기도 하고, 듣는 이는 말하는 이가 되기도 하여 고정적이지 않다.

2 손님을 대접할 때 겸손하게 말하는 것이 우리 문화와 언어 관습인데 이를 모르는 외국인 손님은, 주인이 음식을 가득 차린 상을 보고 차린 것이 없다고 겸손한 태도를 보이지 당황하였다. 즉 외국인 손님이 주인의 말에 당황한 이유는 주인과 외국인 손님이 각각 속한 공동체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이다.

3 '뵈', '뵈'은 입 모양을 본떠 만든 기본자인 'ㅁ'에 획을 추가하여 만들었다.

자료실 이체자

기본자	ㄱ	ㄴ	ㄹ	ㅅ	ㅇ
가획자	ㅋ	ㄷ, ㅌ	ㅂ, ㅍ	ㅈ, ㅊ	ㅊ, ㅎ
이체자		ㄹ		ㅅ (반치음)	ㅇ (옛이음)

→ ‘ㅇ(옛이음)’, ‘ㄹ’, ‘ㅅ(반치음)’은 ‘ㅇ’, ‘ㄴ’, ‘ㅅ’에 획을 더하여 만들었지만, 소리가 세지는 것은 아니어서 ‘이체자’라 함.

- 4 (가)와 같이 음절 단위로 모아쓰기를 하면 의미를 빨리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나)와 같이 자음자와 모음을 풀어쓰면 무슨 말인지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문장이 길어져 읽는 속도가 느려진다.

3일 필수 체크 전략 2

22~23쪽

- 1 ④      2 ②      3 ⑤      4 ④      5 ④

- (가), (나)는 담화가 이루어진 시간과 장소,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관계 등 상황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발화인 ‘어떠세요?’가 서로 다른 의미로 해석된다. 상황 맥락을 고려할 때, (가)의 ‘어떠세요?’는 “머리 모양이 마음에 드세요?”라는 의미로, (나)의 ‘어떠세요?’는 “치료 부위가 아프세요?”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 외국인인 파블로는 음식이 많이 차려져 있는데 ‘차린 건 없지만’이라고 말하는 수민이 아버지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손님을 대접할 때 겸손하게 말하는 한국의 문화와 언어적 관습을 파블로가 알지 못해 의사소통에 장애가 일어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문화적 맥락을 파블로에게 이야기해 주면 의사소통이 원활해질 것이다.
- 모음의 재출자는 초출자 ‘ㄱ, ㄴ, ㄷ, ㄹ’에 기본자 ‘ㅇ’를 합하여 만들었다.
- ‘ㅅ’은 이 모양을 본떠 만든 자음자이다.
- 영어 알파벳은 같은 위치에서 소리 나는 글자들의 모양 사이에 비슷함이 없지만 한글은 같은 위치에서 소리 나는 글자들의 모양이 서로 비슷하다. <보기>를 보고 ④와 같은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없다.

4일 교과서 대표 전략 1

24~27쪽

- 1 ⑤      2 ㉠: 허망 ㉡: 저히      3 ③      4 ⑤  
 5 ①      6 ④      7 ③      8 떡볶기 → 떡볶이,  
 갈치줄임 → 갈치조림      9 ③      10 ③      11 ②  
 12 ②      13 ⑤

- ‘길울[기름]’, ‘꽃의[꼬치]’를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그 뜻을 쉽게 파악할 수 없어 의사소통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표기와 소리가 일치하는 것은 ‘븐’, ‘하얀’이다.  
 ② 표기와 소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길울’, ‘걷다가’, ‘꽃의’, ‘이름이’, ‘궁금했다’이다.  
 ③ 표준 발음법에 따라 ‘길울’은 [기름]로 발음한다.  
 ④ 한글 맞춤법에 따르면 ‘이름이’로 단어의 형태를 밝혀 적어야 한다.
- ㉠, ㉡ 모두 자음 ‘ㅎ’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으므로 ‘ㄱ’은 [ ]로 발음한다.
- 받침 ‘ㅍ’은 대표음 [ㅂ]으로, 받침 ‘ㅌ’은 대표음 [ㄷ]으로 발음한다.  
**오답 풀이**  
 ①의 ‘꽃’은 [꼬]으로 발음한다.  
 ②의 ‘숲’은 [숨]으로 발음한다.  
 ④의 ‘낮’은 [남]으로 발음한다.  
 ⑤의 ‘부엌’은 [부억]으로 발음한다.
- 용언의 어간 말음 ‘ㄹ’은 ‘ㄱ’ 앞에서 [ㄹ]로 발음하므로 ‘뭍고’는 [물꼬]로 발음한다.
- ‘값’의 겹받침 ‘ㅃ’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이’가 오므로 뒤엿것 ‘ㅅ’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하고, ‘ㅅ’이므로 된소리로 발음하여 [갑씨]로 발음한다.  
**오답 풀이**  
 ② [여덜비다], ③ [억따가], ④ [질머지고], ⑤ [칠그로]
- ‘웃어른’에서 ‘웃’의 받침 ‘ㅅ’은 대표음 [ㄷ]으로 바꾸어서 발음하고, 뒤에 ‘어른’이라는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모음 ‘ㄹ’이 이어지므로 대표음 [ㄷ]을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우더른]으로 발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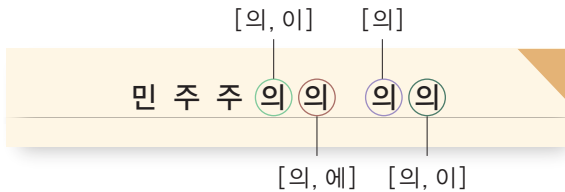
- 7 '뵤어'의 준말은 '뵤'이므로 '뵤어요'의 준말은 '뵤요'가 아니라 '뵤요'이다.
- 8 '떡볶기'의 바른 표기는 '떡볶이'이고, '갈치줄임'의 바른 표기는 '갈치조림'이다.
- 9 담화의 의미는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담화가 이루어지는 맥락 속에서 결정된다.
- 10 (가)는 미용실에서 미용사가 손님에게 질문하는 상황이고, (나)는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질문하는 상황이다.
- 11 외국에서 온 줄리엣은 "괜찮아요."라는 말을 있는 그대로 이해했다.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할 때 상대방을 배려한다면 줄리엣은 차 한잔 드릴 것을 한 번 더 권할 것이다.
- 12 자음자 'ㄱ'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 13 모음자의 초출자와 재출자는 합성의 원리로 만들었다.

**4일 교과서 대표 전략 2** 28~29쪽

- 1 ⑤      2 ㉠: 짚따 ㉡: 업:따      3 ②      4 ①
- 5 ③      6 문화      7 ㉠: ㅋ ㉡: ㅍ ㉢: ㅅ      8 ①
- 9 ⑤

- 1 '민주주의의 의의' 발음은 다음과 같이 발음한다.

**오답 풀이**



[민주주의의 의의], [민주주의의 의의], [민주주의에 의의],  
 [민주주의에 의의], [민주주의의 의의], [민주주의의 의의],  
 [민주주의에 의이], [민주주의에 의이]로 8개로 발음된다.

- 2 겹받침 '래'은 대표음 [ㄹ]로 발음하고, 'ㄷ'은 대표음 [ㅈ]으로 발음한다.

- 3 '부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 '안'이 오므로 받침 'ㄱ'의 대표음인 [ㄱ]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따라서 '부엌 안'은 [부엌안 → 부어간]으로 발음한다.

**오답 풀이**

- ①, ⑤ 받침 뒤에 형식 형태소(조사) '의', '으로'가 오므로 받침의 제 소릿값대로 뒤 음절로 옮겨 발음한다.
- ③ 'ㄹ' 뒤에 'ㄱ'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ㄱ]으로 발음한다.
- ④ 용언의 받침 'ㄹ'은 'ㄱ' 앞에서는 [ㄹ]로 발음한다.

- 4 '병이나 상처 따위가 고쳐져 본래대로 되다.'의 뜻을 가진 단어는 '낫다'이다. '오빠, 감기 빨리 낫으세요.'에서 '낫으세요'는 글의 흐름으로 볼 때 '낫다'를 잘못 쓴 것이다. '낫다'는 활용할 때 '나으세요'로 써야 한다. '낫다'는 '배 속의 아이, 새끼, 알을 몸 밖으로 내놓다.'의 뜻이다.

- 5 (가)는 식당에서 식당 주인과 손님의 대화이고, (나)는 치과에서 의사와 환자의 대화이다. 상황 맥락을 고려할 때 (가)의 발화는 음식의 맛이나 접대 태도에 만족했는지를 묻는 의도이고, (나)의 발화는 식사할 때 이의 상태가 괜찮았는지를 점검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

- 6 재현이는 '우리 엄마'를 '나의 엄마'라는 의미로 말했는데, 다니엘은 민석이와 재현이의 엄마라는 의미로 이해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신을 포함한 여러 사람을 가리키지 않을 때에도 '우리'를 사용하는 문화가 있어서 의미 차이가 발생했다. 이렇게 같은 말도 문화의 차이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7 자음의 기본자 'ㄱ'에 소리가 세짐에 따라 획을 더하여 'ㅋ'을 만들었다. 자음의 가획자 'ㅂ'에서 획을 더하여 'ㅃ'을 만들었다. 발음 기관인 이의 모양을 본떠 'ㅅ'을 만들었다.

- 8 '·, ㅡ, ㅣ'는 하늘, 땅, 사람(천지인)을 본떠 만든 모음 기본자이다.

- 9 한글 자음자는 상형과 가획의 원리로 만들어져 형태가 비슷한 것끼리 발음 기관이 같은 특성이 있다. 예컨대 'ㄱ'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ㅋ'은 'ㄱ'과 같은 위치에서 나는 소리로 'ㄱ'보다 소리가 세짐을 나타내기 위해 획을 더하여 만들었다. 하지만 같은 소리를 나타내는 영어 알파벳은 이러한 특성이 없다.

누구나 합격 전략

30~31쪽

- |                      |     |         |      |
|----------------------|-----|---------|------|
| 1 ㉠: 소리 ㉡: 형태        | 2 ⑤ | 3 ①     | 4 ④  |
| 5 (1) 돼요(되어요) (2) 왠지 | 6 ⑤ | 7 ㉠: 장소 |      |
| ㉢: 선생님, 학생           | 8 ① | 9 ③     | 10 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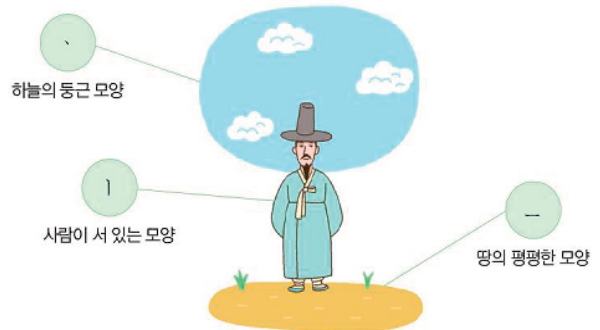
- (가)의 ‘꼬치, 꼰만, 꼰짜’는 ‘꽃이, 꽃만, 꽃과’를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이다. (나)의 ‘꽃이, 꽃만, 꽃과’는 ‘꽃’과 조사 ‘이, 만, 과’의 원래 형태를 밝혀 적은 것이다.
- 단어의 첫음절에 오는 ‘ㄴ’은 [ㄴ]로만 발음한다. 따라서 ‘의지’는 [의지]로 발음한다.  
**오답 풀이**  
 ① ‘띄어쓰기’는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으므로 [띠어쓰기]로 발음한다.  
 ② ‘사랑의’에서 ‘의’는 조사이므로 [사랑의/사랑에]로 발음한다.  
 ③ ‘무늬’는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으므로 [무니]로 발음한다.  
 ④ ‘협의’는 첫음절에 ‘의’가 오지 않으므로 [허비/허비]로 발음한다.
- 표준 발음법 제10항을 따를 때, 겹받침 ‘ㄷ’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ㄱ]으로 발음한다.
- 겹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조사, 어미, 접미사)가 올 경우에 뒤엎것을 제 음가대로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따라서 늪어[늘거], 삶은[살:른], 째은[잘:븐]으로 발음한다.
- (1) 문장을 끝맺고 있으므로 ‘되어요’의 준말은 ‘돼요’이다. (2) ‘웬일’은 ‘어찌 된 일’을 뜻하므로 문맥상 ‘왜 그런지 모르게’, ‘뚜렷한 이유도 없이’를 뜻하는 ‘왜인지’나 그 준말인 ‘왠지’로 고쳐야 한다.
-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누구인지, 말하는 이와 듣는 이는 어떤 관계이며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담화가 이루어진 시간과 장소는 어떠한지 등 담화의 상황 맥락이 드러나지 않아 담화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말하는 이가 발화에 쓰인 단어 중 사전적 의미를 알지 못한 채 말하고 있지는 않다.
- 선생님이 수업에 늦은 학생을 꾸짖는 상황이므로 담화가 이루어진 장소는 수업 중인 교실이다. 말하는 이는 선생님이고 듣는 이는 학생이다.

- (가)에서는 고모가 사는 지역과 주연이가 사는 지역이 달라 ‘쌀을 사다’의 의미가 달라졌다. 고모는 ‘쌀을 사다’라는 말을 ‘쌀을 팔아 돈을 마련하다.’라는 의미로 사용했지만, 주연이는 ‘돈을 주고 쌀을 사서 오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였다. (나)에서는 할머니는 지수와 세대가 달라 ‘공구(공동 구매)’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 자음자의 기본자는 발음 기관의 모양과 움직임, 모음자의 기본자는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자음 기본자의 제자 원리〉



〈모음 기본자의 제자 원리〉



- 한글은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소리를 나타내는 문자이다. 따라서 한글은 같은 소리를 내는 글자는 의미와 상관 없이 같은 글자로 적기 때문에 적은 수의 글자로 수많은 소리를 나타낼 수 있어 효율적이다.

창의·융합·코딩 전략 ①

32~33쪽

1 ㉔      2 ㉑      3 넓이[널비]      4 ㉓

1 자음 ‘ㅎ’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으므로 ‘흰’은 [힌]으로 발음한다.

2 ‘벗긴’에서 첫음절 ‘벗’의 받침 ‘ㅅ’은 대표음 [ㄷ]으로 발음하므로 ‘벗긴’은 [변긴]으로 발음한다.

오답 풀이

㉔는 뱉[백], ㉓은 안[안], ㉔는 앞[압], ㉕는 집[집]으로 발음한다.

3 1단계: <보기> 중 받침이 홀받침이 아닌 쌍받침이거나 겹받침인 것은 ‘넓이, 있고, 값이, 흙 위’이다.

2단계: 받침 뒤의 말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것은 ‘넓이, 값이, 흙 위’이다.

3단계: 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는 것은 접미사 ‘-이’가 오는 ‘넓이’와 ‘값이’이다. ‘흙 위’는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오므로 겹받침의 대표음을 뒤 음절로 옮겨 [흐기]로 발음한다.

4단계: 받침을 [ㄷ]로 발음하는 것은 ‘넓이[널비]’이다. ‘값이’는 [갑씨]로 발음한다.

4 대화의 상황 맥락을 고려할 때 감기에서 아직 회복된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므로 ㉔의 기본형은 ‘낫다’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㉔은 ‘나았거든’이 적절한 표기이다.

창의·융합·코딩 전략 ②

34~35쪽

5 ㉔      6 ㉓      7 ㉒      8 ㉕

5 해수욕장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수영을 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상황 맥락을 고려할 때 ‘양심을 지켜 주세요.’라는 표어는 바다를 깨끗이 사용하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말아 달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 학교 도서관



▲ 지하철 승강장



▲ 횡단보도



▲ 해수욕장

양심을 지켜주세요.



▲ 시험장

6 제시된 그림은 우리나라 사람과 외국인의 대화 상황으로,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언어문화를 잘 몰라 대화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우리나라와 문화가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과 대화를 원활하게 하려면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문화의 차이가 나는 의사소통 상황에서는 우리와 다른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해.

그리고 상대방이 우리나라 문화를 이해할 있도록 도와야 해.



7 ㉑은 모음자의 기본자(상형), ㉒은 자음자의 기본자(상형), ㉓은 모음자의 초출자(합성), ㉔은 모음자의 재출자(합성), ㉕은 자음자의 가획자(가획)이다.

8 한글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자음 기본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영어 알파벳과 달리 글자 모양과 발음 기관이 관련이 있다. 또한 같은 위치에서 소리 나는 글자의 모양이 비슷하여 글자의 모양을 통해 글자들의 관계나 소리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2주

읽기/쓰기/듣기·말하기

1일 개념 돌파 전략 1

39, 41쪽

1-2 정의 2-2 ① 3-2 ② 4-2 ① 5-2 ②

**1-2** 대상의 의미를 밝히는 설명 방법은 정의이다. 제시된 그림에서는 초식 동물의 뜻을 명확히 밝혀 설명하고 있으므로 '정의'의 설명 방법이 쓰였다.

**2-2** '분석'은 대상을 구성하는 요소나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으로, 제시된 문장에서는 가야금을 구성하는 요소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②는 분류와 구분에 대한 설명이다.
- ③은 비교와 대조에 대한 설명이다.

글쓴이는 대상이나 상황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여러 설명 방법을 사용하네.

설명 방법을 통해 읽는 이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네.



**3-2** 매체 자료는 전달하려는 내용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전달 내용을 잘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여야 한다.

**4-2** 글의 주제를 고려한 고쳐쓰기는 글 전체 수준의 고쳐쓰기이고, 문장의 흐름을 고려한 고쳐쓰기는 문단 수준의 고쳐쓰기이다.

오답 풀이

- ㄷ은 단어 수준의 고쳐쓰기이다.
- ㄹ은 문단 수준의 고쳐쓰기이다.

**5-2** 공감하며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말에 적절하게 맞장구를 치며 반응을 보여야 한다. 또한 상대방을 향해 몸을 돌리고 시선을 맞추며 상대방에게 관심을 나타내야 한다.

1일 개념 돌파 전략 2

42~43쪽

1 ② 2 ㉠: 비교와 대조 ㉡: 분류와 구분 ㉢: 분석  
3 ③ 4 ③ 5 ㉣: 요약 ㉤: 재구성

**1** ㉠은 대상 '호랑이'의 뜻을 밝혀 설명한 정의가 쓰였다. ㉡은 육식 동물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한 예시가 쓰였다. ㉢은 지각하게 된 까닭을 밝혀 설명한 인과가 쓰였다.

**2** ㉠은 진달래와 철쭉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비교와 대조의 방법이 쓰였다.

㉡은 크기라는 기준에 따라 자동차의 종류를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므로 분류와 구분의 방법이 쓰였다.

㉢은 곤충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쪼개어 설명하고 있으므로 분석의 설명 방법이 쓰였다.

설명 방법을 찾을 때 먼저 하나의 대상을 설명하고 있는지,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고 있는지 살펴봐.



**3** ③은 도표(그래프)의 활용 효과이다.

**4** '그러나'를 '또한'으로 수정하여 앞뒤 문장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접속어의 사용이 적절한지를 고려한 것으로 문단 수준의 고쳐쓰기에 해당한다.

자료실 고쳐쓰기의 일반 원리

추가	새로운 내용, 문장, 단어 등을 보충하는 것
삭제	불필요한 내용, 문장, 단어 등을 빼는 것
대치	그 위치에서 다른 내용, 문장, 단어를 바꾸는 것
재구성	앞뒤 순서를 바꾸거나 내용을 늘이거나 줄이면서 조정하는 것

**5** 찬우는 ㉠에서는 은미가 한 말을 요약해서 말했고, ㉡에서는 은미가 한 말을 재구성해서 말하며 은미와 공감적 대화를 하였다.

**2일 필수 체크 전략 ①**

44~47쪽

- 1 ③      2 ③      3 ㉠: 분류와 구분 ㉡: 분석  
4 ⑤

1 이 글에서는 예시의 설명 방법을 써서 정전기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예를 설명하였고, 정의의 설명 방법을 써서 정전기의 뜻을 설명하였다.

**제재 설명** 김정훈, <정전기가 겨울로 간 까닭은?>

갈래	설명문
제재	정전기
주제	정전기의 특성과 예방법
특징	① 제목이 질문 형식이어서 독자의 호기심을 일으킴. ② 정의, 인과, 예시, 분석 등의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대상을 설명함.

2 글쓴이는 한중일 삼국의 식사 문화와 젓가락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또 인과를 사용하여 삼국의 식사 문화의 차이가 젓가락 모양의 차이를 가져왔다는 점도 설명하였다.

**제재 설명** 김경은, <한중일 삼국의 젓가락>

갈래	설명문
제재	한중일 삼국의 젓가락
주제	한중일 삼국의 식사 문화와 젓가락의 차이
특징	비교와 대조, 인과의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한중일 삼국의 식사 문화와 젓가락의 차이를 설명함.

3 ㉠은 '모양'을 기준으로 머리카락의 종류를 분류·구분하고 있다. ㉡은 머리카락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를 분석하고 있다.

**제재 설명** <머리카락 얼마나 알고 있니?>

갈래	설명문
제재	머리카락
주제	머리카락의 특성과 기능
특징	① 처음 부분에서 질문을 통해 독자의 흥미를 일으킴. ② 정의, 분류와 구분, 분석 등의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대상을 설명함. ③ 그림 자료를 사용하여 독자의 이해를 도움.

여러 대상을 가지고 묶거나 나누는 것은 분류와 구분, 하나의 대상을 가지고 구조를 살피는 것은 분석이라고 정리하자!



4 이 글에서는 정의, 예시, 분석, 인과의 설명 방법을 써서 공감각을 설명하였다. ⑤는 이 글에 쓰이지 않은 분류와 구분이 쓰였다.

**오답 풀이**

①은 정의, ②는 분석, ③은 인과, ④는 예시의 설명 방법이 쓰였다.

**제재 설명** 이명옥, <그림에서 들려오는 소리>

갈래	설명문
제재	공감각이 드러난 그림
주제	그림을 활용한 공감각에 대한 이해
특징	① 정의, 예시, 분석 등의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공감각을 설명함. ② 독자에게 말을 거는 듯한 말투를 통해 친근감을 느끼게 함.

**2일 필수 체크 전략 ②**

48~49쪽

- 1 ①      2 ③      3 ③      4 ①

1 이 글에서는 대상의 뜻을 밝혀 설명하는 정의의 설명 방법은 쓰이지 않았다.

2 ㉠에는 대상을 기준에 따라 묶거나 나누어 설명하는 분류와 구분이 쓰였다. ㉢도 분류와 구분의 방법으로 세금의 종류를 설명하였다.

**오답 풀이**

①은 정의, ②는 예시, ④는 분석, ⑤는 인과의 설명 방법이 쓰였다.



**제재 설명** 서동준, <우리는 왜 간지럼을 느낄까>

갈래	설명문
제재	간지럼
주제	간지럼을 타는 이유와 간지럼 연구가 지닌 의의
특징	① 분류와 구분, 비교와 대조, 인과 등의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간지럼의 특성과 간지럼을 타는 이유를 설명함. ② 질문을 통해 간지럼에 대한 독자의 흥미를 일으킴.

- 3 [A]에서는 여드름이 생기는 이유를 원인과 결과를 밝혀 설명한 인과의 설명 방법이 쓰였다. <보기>에서도 해수면이 상승하는 이유를 인과의 방법으로 설명하였다.
- 4 <보기>와 달리 ㉠에서는 유제품과 고탄수화물 식품의 구체적인 예를 보여 주는 예시의 방법을 써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제재 설명** <여드름은 왜 생길까>

갈래	설명문
제재	여드름
주제	여드름이 생기는 이유와 예방하는 방법
특징	정의, 예시, 인과 등의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대상을 설명함.

**3일 필수 체크 전략 1**

50~53쪽

1 ③      2 ⑤      3 ⑤      4 ②

- 1 (가)는 현재의 부정적인 상황을 ‘몸살 앓는’으로 제시하고, ‘살린다’라는 긍정적인 뜻의 단어를 사용하여 탐방 예약제가 현재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며, 그 필요성을 드러내고 있다.
- 2 이 글에 제시된 사진은 글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하고 실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주고 있다.

**제재 설명** <사라진 명태의 귀환-명태 살리기 연구 과제 성공>

갈래	기사문
제재	명태 살리기 연구 과제 성공
주제	명태 살리기 연구 과제가 성공을 이룸.
특징	① 다양한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대상을 설명함. ② 그림 자료를 사용하여 독자의 이해를 도움.

다양한 매체 자료가 사용된 글을 읽을 때와 그렇지 않은 글을 읽을 때를 비교해 보고, 글쓴이가 왜 매체 자료를 사용했는지 알아내 보자.



- 3 긴 문장은 이해하기 쉽도록 문장을 적절히 나누거나 짧게 줄여야 한다. ㉠은 ‘이 밖에도 머리카락이 비벼서 말리거나 머리카락이 젖어 있을 때 빗질을 하는 것도 머릿결에 나쁜 영향을 준다.’와 같이 명확한 문장으로 수정하거나 ‘이 밖에도 머리카락이 비벼서 말리면 머리카락끼리 마찰하여 머릿결이 상할 수 있다. 머리카락이 젖어 있을 때는 머리카락이 약해진 상태이므로 이때 빗질을 하는 것도 머릿결에 나쁜 영향을 준다.’와 같이 두 문장으로 나눈다.

**제재 설명** <건강한 머릿결을 갖고 싶어요!>

갈래	설명문
제재	머리카락, 머릿결
주제	머리카락이 나빠지는 이유와 건강한 머릿결을 유지하는 방법
특징	① 다양한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머리카락이나 머릿결과 관련된 정보를 설명함. ② 그림 자료를 사용하여 독자의 이해를 도움.

- 4 공감하며 대화하려면 먼저 상대방의 감정과 상황, 처지를 이해하려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오답 풀이**

- ① 준호는 효진이와 대화하면서 마음이 편해졌다고 하였다.  
③ 공감하며 대화하기는 상대방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며 협력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대화이다.  
④ 효진이는 준호와 눈을 맞추는 등의 소극적 들어 주기를 하였다.  
⑤ 효진이는 준호가 한 말을 요약하거나 재구성하여 말하는 등의 적극적 들어 주기를 하였다.

**3일 필수 체크 전략 ②**

54~55쪽

1 ⑤      2 ⑤      3 ②      4 ④

1 제시된 기사는 인터넷 기사로, 미세 먼지를 가리킬 때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불청객’과 미세 먼지 때문에 뿌연 하늘이 담긴 사진을 제시하여 겨울철 미세 먼지가 심각함을 말하고 있다.

2 ㉠은 ‘달콤 창고’가 된 지하철 물품 보관함의 사진이다.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끌고, 글의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글의 처음 부분에 ‘달콤 창고’의 실제 모습을 제시하였다.

**제재 설명** 케이비에스(KBS), <명견만리> 제작진, <착한 소비, 내 지갑 속의 투표용지>

갈래	논설문
제재	달콤 창고
주제	착한 소비의 실천을 통해 기업, 사회, 세상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음.
특징	다양한 표현 방법과 매체 자료를 사용하여 내용을 전달하고 독자의 이해를 도움.

3 제시된 글에서는 잘못 쓰거나 빠뜨린 글자가 있어서 수정한 내용은 없다.

**오답 풀이**

- ① ‘기르는데’를 ‘기르는 데’로 띄어쓰기를 하였다.(단어 수준)
- ② “그렇다면 어떤 점이 좋을까?”에 ‘수영을 하면’을 넣어 문장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고쳤다.(문장 수준)
- ④ “난 초등학교 때까지 수영을 좋아했다.”는 문단의 중심 내용에서 벗어나 삭제했다.(문단 수준)
- ⑤ “그러나”를 앞뒤 문장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또한’으로 고쳤다.(문단 수준)

고쳐쓰기는 자신이 쓴 글에서 부족한 부분을 다듬어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글을 개선하는 것이다.



4 광수는 은미를 향해 앉아 은미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거나 맞장구를 쳐주며 소극적 들어 주기를 하고 있다.

**4일 교과서 대표 전략 ①**

56~59쪽

1 ⑤      2 비교와 대조      3 ②      4 ②  
5 ①      6 ②      7 ④      8 ④

1 (마)에는 귀화 식물인 오리새나 큰감의털이 우리나라에 정착하게 된 경로를 원인과 결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인과의 방법이 쓰였다.

2 제시된 글에 사용된 주된 설명 방법은 비교와 대조이다.

3 (나)는 세금의 쓰임새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 ②는 시계를 구성하는 요소를 분석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어서 (나)에 쓰인 설명 방법이 쓰이지 않았다.

**오답 풀이**

(가)에는 정의, (다)에는 분류와 구분, (라)에는 비교와 대조, (마)에는 인과의 방법이 쓰였다.

4 구들을 구성 요소인 ‘아궁이, 고래, 굴뚝’으로 나눈 후, 구들이 데워지는 순서를 설명하여 독자가 구들의 구조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5 (가)에서 ‘등산객으로 몸살 앓는 △△산, 탐방 예약제로 살린다’라는 제목을 통해 탐방 예약제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은 학생들의 식사 시간을 표로 제시하여 식사 시간별 학생의 비율을 구체적이고 정확한 수치로 보여 주고 있고, <보기>는 도표(원그래프)로 제시하여 식사 시간별 학생의 비율을 한눈에 보여 주고 있다. 하지만 ㉠과 <보기>를 통해 식사 시간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은 알 수 없다.

7 제시된 글은 건강한 머릿결에 대한 정보를 전하고 있다. (라)는 머릿결이 나빠지는 이유를 제시한 문단으로 주제와 관련 있는 내용을 다루므로 삭제할 필요가 없다.

8 ㉡에서 효진은 지애가 한 말을 정리해서 자신이 지애를 이해하고 있음을 표현하였다.

4일 교과서 대표 전략 2

60~61쪽

1 ⑤      2 ⑤      3 ②      4 경북궁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분석의 설명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분석은 대상을 구성하는 요소나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이다.      5 ④      6 ③      7 ⑤      8 ④

- 제시된 글에서는 ‘국악기의 종류’를 연주 방법이라는 기준에 따라 종류별로 나누거나 묶는 분류와 구분의 방법이 쓰였다.
- 제시된 글에서는 ‘발효와 부패’를 비교와 대조의 설명 방법을 써서 설명하고 있다. ⑤도 비교와 대조의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은 정의, ②는 분류와 구분, ③은 예시, ④는 인과의 방법으로 대상을 설명할 수 있다.

- ①은 설록 홈스의 뛰어난 추리력과 관찰력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 경복궁의 구조는 ‘경회루, 교태전, 근정전’ 등의 경복궁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로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다.

평가 기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분석의 설명 방법이 효과적임을 밝힘.	
대상을 구성하는 요소나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한다는 분석의 개념을 설명함.	

- 글에 제시된 매체 자료의 종류는 그림이다. ‘달콤 창고’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모습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를 연속적으로 제시하여 달콤 창고가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고자 했다.
- 제시된 매체 자료는 식사 속도에 따른 비만과 성인병 위험도를 보여 주는 도표(그래프)이다. 식사 속도가 빠를수록 비만과 성인병의 위험도가 커진다는 내용을 한눈에 알 수 있다.
- 제시된 글은 ‘수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글이다. ㉠은 달리기 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어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이므로 삭제해야 한다.
- 상대방의 말을 요약하며 듣는 것은 적극적 들어 주기 방법이다. 앞에서 말한 준호의 말을 요약한 것으로 ④가 적절하다.

누구나 합격 전략

62~63쪽

1 ④      2 ⑤      3 (1) 정의 (2) 분류와 구분 (3) 비교와 대조 (4) 분석      4 ③      5 ①      6 ②  
7 ④

- (가), (나)는 모두 분류와 구분의 설명 방법이 쓰였다. (가)는 간지러운 느낌의 종류를 가려움과 간지럼으로 나누었고, (나)는 세금의 종류를 걷는 기관과 걷는 방식에 따라 나누었다.
- 인과는 대상을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설명하는 방법인데, ⑤의 예는 정의가 쓰였다.
- 자전거의 뜻은 정의, 자전거의 종류는 분류와 구분, 자전거와 자동차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비교와 대조, 자전거의 구조는 분석을 사용하여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제시된 글은 기사문으로, 제목을 통해 기사의 주요 내용을 압축하여 전달하고 있다.
- 제시된 글은 한국의 명태 어획량 변화에 대해 말하고 있다. 변화 양상은 구체적 수치와 함께 도표(그래프)로 나타내면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다.
- 글의 흐름으로 보아 ‘어떤 의견에 찬성하고 따르다.’나 ‘어떤 것을 붙들어서 버티게 하다.’라는 뜻의 ‘지지해’는 ‘어떤 상태나 상황을 그대로 이어 가다.’라는 뜻의 ‘유지해’로 고쳐야 한다.
- 두 사람 모두 상대방에게 자신의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지는 않다.

창의·융합·코딩 전략 1

64~65쪽

1 ⑤      2 분석 - 모기의 몸을 구성하는 요소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3 비교와 대조      4 ①

- ㉠은 정전기를 예방하는 방법을 예시의 방법을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 2 <보기>는 모기의 몸 구조를 구성하는 요소를 그림에 직접 표시하여 모기의 몸 구조를 쉽게 설명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설명방법을 '분석'이라고 씀.	
모기의 몸을 구성하는 요소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씀.	

- 3 제시된 글은 간지럼과 가려움을 비교와 대조하여 대상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 4 제시된 글에서는 꿀과 조청의 뜻을 설명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기>에서 찾은 꿀과 조청의 뜻을 정의의 설명 방법을 써서 추가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② <보기>에 '꿀'과 '조청'의 구조는 나타나지 않는다.  
 ③ <보기>에 '꿀'과 '조청'의 활용 사례는 나타나지 않는다.  
 ④ <보기>에서는 '꿀'과 '조청'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고 있을 뿐, 논리적 인과 관계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⑤ <보기>에 '꿀'과 '조청'의 여러 종류는 나타나지 않는다.

**창의·융합·코딩 전략 2**

66~67쪽

5 ㉠: 연도별 전국 기부 가게의 수의 증가 추세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 연도별 전국 기부 가게 수의 증가량(구체적 수치)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      6 구제하는데 → 구제하는 데      7 부드럽게 눈을 맞추며      8 카메라가 갑자기 작동이 안 되어서 답답하겠다. 인터넷에서 해결 방법을 검색해 볼까?

- 5 ㉠은 전국 기부 가게 수의 변화를 연도별로 보여 주는 도표(막대그래프)이고, ㉡은 전국 기부 가게 수만 보여 주는 표이다. 표는 연도별 전국 기부 가게 수와 증가량 수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도표(막대그래프)로 제시하면 전국 기부 가게 수가 매년 증가하는 변화 모습을 한눈에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 자료가 도표임을 알고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고 씀.	
㉡ 자료가 표임을 알고 구체적인 수치를 알 수 있다고 씀.	

- 6 제시된 글은 홍길동의 영웅적인 모습을 설명한 글이다.

'구제하는데'는 '구제하는 데'로 띄어 써야 한다.

**오답 풀이**

"또 홍길동은~부리기도 했다."를 두 문장으로 나누어 "또 홍길동은 비범한 능력을 지녔다. 축지법으로 ~ 부리는 등 도술에 능했다."로 고칠 수 있다.  
 '하지만'은 '이뿐만 아니라'로 고칠 수 있다.

- 7 효진이는 고개를 끄덕이거나 부드럽게 지애의 눈을 맞추면서 공감하며 듣기를 하고 있다.

- 8 주연이는 지혁이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거나 지혁이의 감정에 공감해 주지 않고 근거 없는 추측으로 지혁이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카메라가 작동이 잘 되지 않아 답답해하는 지혁이의 마음에 공감하는 말을 씀.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자는 등의 해결 방안을 씀.	

**신유형·신경향·서술형 전략**

70~73쪽

- 1 ①      2 ㉠: 언찌 ㉡: 여덜 ㉢: 국:찌      3 ④  
 4 한글 맞춤법 규정에 따라 '뵤다'의 어간 '뵤-'가 '-어'와 어울려 '뵤'로 될 적에는 준 대로 적기 때문이다.      5 ③  
 6 ㉠: 주지 않아도 돼요. ㉡: 너한테 잘 어울려.      7 ④  
 8 ⑤      9 정전기로 고생하는 정도가 다른 이유는 사람의 피부 상태에 따라 정전기의 발생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10 ⑤      11 ㉠: 그래서/따라서/그러므로 ㉡: 이 밖에도 머리카락이 비벼서 말리면 머리카락끼리 마찰하여 머릿결이 성할 수 있다. 머리카락이 젖어 있을 때는 머리카락이 약해진 상태이므로 이때 빗질을 하는 것도 머릿결에 나쁜 영향을 준다.  
 ㉢: 관리하는      12 ③

- 1 '니'는 자음을 첫소리로 가질 때나 단어의 첫음절 이외에 올 때는 [니]로 발음하고, 조사 '의'는 [의]로도 발음함을 허용하므로, 단모음으로도 발음한다.

- 2 ㉠ 겹받침 'ㅈ' 뒤에 자음이 오면 [니]으로 발음한다.  
 ㉡ 겹받침 'ㅈ'이 어말에 오면 [리]로 발음한다.  
 ㉢ 용언인 겹받침 '러'은 '기' 앞에서만 [리]로 발음하며, 다른 자음이 이어지는 경우에는 [기]으로 발음한다.

3 받침 ‘ㄷ, ㅌ’은 뒤에 형식 형태소인 ‘ㅣ’모음과 결합할 때만 ‘ㅈ, ㅊ’으로 소리가 바뀌어 난다.

4 ‘뵤-’가 어미 ‘-어’와 결합될 때 ‘뵤’로 줄어들므로, 준 대로 ‘뵤’로 적는다.

평가 기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뵤-’가 ‘-어’와 어울려 ‘뵤’로 되어 준 대로 적었음을 씀.	
한 문장으로 씀.	

5 (가)는 식당에서 종업원이 식사를 마친 손님에게 하는 말이고, (나)는 의사가 환자에게 하는 말이라는 상황 맥락을 고려할 때, ③이 적절하다.

6 ㉠은 식사 시간에 음식을 더 먹도록 권할 때 주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고, ㉡은 옷 가게에서 옷이 잘 어울리는지 질문할 때 어울린다는 의미이다.

평가 기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에 음식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의도로 말했음을 씀.	
㉡에 옷이 잘 어울린다는 의도로 말했음을 씀.	

7 ④는 자음 기본자인 ‘ㅁ’에 획을 더하여 다른 자음자 ‘ㅂ’을 입력하고 있으므로 ‘가획’의 원리가 적용되었다.

**오답 풀이**

- ①, ② 모음 기본자끼리 합하여 초출자를 만들었으므로 합성의 원리가 적용되었다.
- ③ 자음자에 획을 추가했으므로 가획의 원리가 적용되었다.
- ⑤ 자음자를 옆으로 나란히 쓰고 있으므로 병서의 원리가 적용되었다.

8 제시된 글은 식물의 종류를 원산지를 기준으로 나누어 설명(분류와 구분)하고 있다. 식물에 자생 식물과 외래 식물이 포함되며 외래 식물에 귀화 식물이 포함되게 도식화한 ⑤가 적절하다.

9 ㉠에 대한 답이 끝부분에 제시되어 있다.

평가 기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원인을 ‘사람의 피부 상태에 따라 정전기의 발생 정도가 다름’이라고 밝힘.	
결과를 ‘정전기로 고생하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름’이라고 밝힘.	
‘~이유는 ~때문이다.’의 문장 형식으로 씀.	

10 머리카락의 종류를 일정한 기준(모양)에 따라 나눈 분류와 구분의 방법으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다.

11 ㉠은 앞뒤 문장이 원인과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은 길이가 길어 문장을 두 문장으로 나눈다. ㉢은 문맥에 어울리는 단어인지 점검한다.

12 제시된 그림에서 재영이는 턱을 꺾어 채 시선을 아래로 하고 무표정한 얼굴로 친구의 말을 듣고 있다. 그래서 친구는 존중받지 못하는 느낌이 들어 기분이 상하였다. 대화할 때는 상대방 쪽으로 몸을 향하고 눈을 맞추어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고 있음을 나타내야 한다.

**적중 예상 전략 | 1회**

74~77쪽

1 ①      2 ④      3 ②      4 ‘빛이’는 받침 ‘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이’가 오므로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비치]라고 발음해야 하기 때문이다.

5 ④      6 ⑤      7 ㉠: 오시    ㉡: 우동    8 ③

9 ⑤      10 ④      11 ㉠: 지각    ㉡: 부족    12 ③

13 말하는 이와 듣는 이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고, 언제 어디서 이루어진 담화인지, 무엇을 같이 쓴다는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14 ②      15 ③      16 ④

17 낮 놓고 기억 자도 모른다. - 영어로 쓴 글보다 한글로 쓴 글에 담긴 정보를 더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1 ‘민주주의’에서 주의는 [주의] 또는 [주이]로 발음한다. 조사 ‘의’는 [의] 또는 [에]로 발음한다. 단어의 첫음절의 ‘의’는 [의]로만 발음하므로, ‘의의’는 [의의] 또는 [의이]로 발음한다. 따라서 ①의 발음은 나오지 않는다.

2 째다[잘따], 훗다[할따]의 겹받침은 어말에서 대표음 [ㄹ]로 바뀌어 발음한다.

**오답 풀이**

- ① 받침 ‘ㅌ’의 대표음은 [ㄷ]이다.
- ② ‘ㄴ, ㄹ’의 대표음은 [ㄹ]이다.
- ③ 숲[숯], 솔[숯]은 어말에서 서로 다른 소리로 발음된다.
- ⑤ 맑다[막따], 훗다[할따]의 겹받침은 자음 앞에서 각각 대표음 [ㄹ], [ㄹ]로 바뀐다. (단, ‘맑-이’ ‘ㄴ’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만날 때는 [ㄹ]로 발음됨.)

- 3 겹받침 ‘ㄹ’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ㄱ]으로 발음하지만, 용언의 어간 발음 ‘ㄹ’은 ‘ㄱ’ 앞에서 [ㄹ]로 발음한다. ②의 ‘맑고’는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이어지므로 [말꼬]로 발음한다.

**오답 풀이**

① ‘굴지’는 ‘ㄱ’이 아닌 자음 앞에 오므로 ‘ㄹ’을 [ㄱ]으로 발음한다. ③, ④, ⑤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이어지므로 ‘ㄹ’을 [ㄹ]로 발음한다.

- 4 ‘빛이’를 [비시]로 잘못 발음하여 ‘화분을 빗이 많은 곳에 두자라’는 의미로 전달되어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빛이’는 [비치]로 발음한다.

평가 기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흡받침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할 때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는 표준 발음법을 밝혀씀.	

- 5 ①, ④와 같이 ‘여덟’, ‘칠’처럼 겹받침으로 끝나는 말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이다’, ‘으로’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겹받침의 뒤엎것을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따라서 ④의 ‘칠으로’는 [칠그로]로 발음한다.

- 6 ‘맛없다’에서 겹받침 ‘ㅃ’은 자음 앞에서 대표음 [ㅍ]으로 발음되고 있다. 맛없다[마뎡따]의 발음에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와 결합하는 조건은 나타나지 않으므로 ⑤는 적용되지 않았다.

- 7 ㉠ ‘옷’이 조사 ‘이’와 결합하므로 받침 ‘ㅅ’을 제 음가대로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오시]로 발음한다. ㉡ ‘옷-’이 실질 형태소인 ‘옷’과 결합하므로 받침 ‘ㅅ’이 대표음 [ㄷ]으로 바뀌어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우든]으로 발음한다.

- 8 ‘돼’는 ‘되어’가 줄어든 말이므로 ‘돼요’는 ‘돼요’로 줄여 써야 한다.

- 9 ‘맞추다’는 ‘둘 이상의 일정한 대상들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여 살피다.’로, ‘친구의 답과 내 답을 맞추어 보다.’와 같이 쓰일 때는 바른 표기이다. 하지만 ‘문제에 대한 답을 틀리지 않게 하다.’의 의미로 쓰일 때는 ‘맞히다’를 써야 한다.

- 10 담화의 의미는 담화를 이루는 구성 요소인 말하는 이와 듣는 이, 시간과 장소, 의도와 목적, 상황 맥락과 사회·문

화적 맥락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된다.

- 11 ㉠은 학교 앞 정문에서 지각하기 5분 전의 상황이고, ㉡은 교실 안에서 수업 시작하기 5분 전의 상황이다.

- 12 ‘임진각’은 추석이 되면 실향민들이 모여 합동 제사를 지내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는 곳이다. ‘임진각, 통일’ 등을 통해 남북 분단으로 실향민이 존재하는 한국의 사회·역사적 배경이 담화의 사회·문화적 맥락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3 제시된 담화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 담화가 이루어지는 시간과 장소, 즉 상황 맥락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

평가 기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담화의 상황 맥락 요소인 말하는 이와 듣는 이, 시간과 장소, 발화 목적과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음을 씀. ‘~ 때문이다.’로 끝맺음.	

- 14 ‘ㄴ’은 혀끝이 윗잇몸에 붙는 모양을 본떠 만든 자음 기본자이다. ‘ㄱ’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ㄷ’은 입의 모양을, ‘ㅅ’은 이의 모양을, ‘ㅇ’은 목구멍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 15 모음 기본자 외의 나머지 모음은 합성의 원리에 따라 ‘ㅡ, ㅣ’에 ‘ㄷ’을 합하여 ‘ㄴ, ㄷ, ㄹ’을 만들었고, ‘ㄴ, ㄷ, ㄹ’에 ‘ㄷ’을 한 번 더 합하여 ‘ㄷ, ㄸ, ㄹ’을 만들었다.

- 16 한글은 ‘ㅏ’가 [ㅏ]로만 발음되는데, 영어 ‘a’는 [æ], [e], [ɑ] 등 여러 소리로 발음된다.

**오답 풀이**

③ ‘ㅏ’는 합성의 원리로 만들었다. ⑤ 한글은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소릿값만을 지니고 있어서 영어 알파벳보다 쉽게 읽을 수 있다.

- 17 한글의 모아쓰기 방식은 단어나 문장의 뜻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읽기 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평가 기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고 모아씀. 장점으로 정보를 빠르게 이해할 수 있다고 씀.	

적중 예상 전략 | 2회

78~81쪽

- 1 ②      2 ②      3 ④      4 ①      5 ③  
 6 ④      7 ④      8 (나) -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끌고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9 ④      10 ⑤  
 11 의견을 말한 것뿐인데 친구들이 너 때문에 티셔츠를 못 만들  
 게 된 것처럼 말했구나.

- 이 글은 정전기에 관한 여러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쓴 설명하는 글이다.
- <보기>는 여드름을 예방하기 위해 유제품이나 고탄수화물 식품을 피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고탄수화물 식품을 예로 들고 있다. (가)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정전기가 발생하는 예를, (라)에서는 마찰할 때 전자를 쉽게 잃는 물체와 쉽게 얻는 물체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 ㉔은 원자의 구성 요소를 분석의 설명 방법을 써서 설명하였다. ④에는 분류와 구분의 설명 방법이 쓰였다.
- (가)에서 우리나라의 체감 경제 고통 지수는 2006년 이후 상승하고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나)를 볼 때 경제가 나빠진 2008년에서 2009년 사이에 착한 소비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공정 무역 매출액이 무려 210퍼센트나 증가했다고 하였다.
- (나)에서 도표(선그래프) [A]를 보면 주황색의 세계 경제 성장률은 하락하고 있지만, 착한 소비에 해당하는 초록색의 세계 공정 무역 매출액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다.

오답 풀이

- [A]를 보면 세계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세계 공정 무역 매출액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세계 경제 성장률의 하락을 세계 공정 무역 매출액 감소의 원인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A]의 그래프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과 세계 공정 무역 매출액을 대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착한 소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개선과는 관련이 없다.
- [A]를 보면 세계 공정 무역 매출액 증가와 세계 경제 성장률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세계 공정 무역 매출액의 증가가 세계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는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나타나지 않는다.
- [A]는 세계 경제 성장률과 세계 공정 무역 매출액을 보여 주고

있을 뿐, 세계 경제 성장률에서 세계 공정 무역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 (라)에는 이미 머릿결에 좋은 음식에 관한 예시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머릿결에 좋은 음식을 예로 넣을 필요가 없다.
- (다)에는 머릿결이 나빠지는 이유를 인과로 설명하였다. ④도 인과로 글을 쓰기에 적절한 대상이다.

오답 풀이

①은 정의, ②는 분류와 구분, ③은 분석, ⑤는 비교와 대조의 방법으로 설명하기에 적절한 대상이다.

- <보기>는 머리카락의 구조를 나타낸 그림이다. (나)에서 머리카락을 이루는 구성 요소를 모표피, 모피질, 모수질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므로 (나)에 추가하면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된다.

평가 기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적절한 문단으로 (나)를 제시함.	
효과로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끈다고 씀.(또는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씀.)	

-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기보다는 상대방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며 우호적인 태도로 들어 주어야 공감하며 대화할 수 있다.
- 한술이는 오늘 도서관이 문을 닫았다는 준희의 말을 주의 깊게 듣지 않고, 모듬 회의 전까지 자료를 찾을 고민을 하는 준희에게 지금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면 된다고 말하였다.
- 상대방의 말을 요약하는 것은 적극적 들어 주기의 방법이므로, 준희의 속상한 감정을 헤아려 바로 앞에서 준희가 한 말을 요약하면 된다.

평가 기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준희가 앞에서 말한 '의견을 말한 것뿐인데 준희 때문에 친구들이 티셔츠를 못 만들게 된 것처럼 말했다'고 요약하여 씀.	
대화의 흐름에 맞게 말하는 말투로 자연스럽게 씀.	

## 필수 어휘 체크 전략 이렇게 봐요~

- ✔ 필수 개념어와 어휘를 뜻과 예로 익혀 봐요!
- ✔ 여러 유형의 문제를 쉽고 빠르게 풀어 봐요!
- ✔ 필수 어휘 테스트에서 틀린 문제가 있다면 필수 어휘 모음에서 뜻을 확인하여 완벽하게 마무리해요!

# 필수 어휘 체크 전략

BOOK 1 ..... 42

BOOK 2 ..... 54



# 필수 어휘 체크 전략

## 필수 어휘 모음

### 화자

①  에서 말하는 이.

예) 이 시에는 **화자**가 시 속에 직접 드러나 있다.

### 서술자

②  에서 작가를 대신하여 말하는 이.

예) 이 소설은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직접 전달하고 있다.

### 시샘하다

'시새움하다'의 준말. 자기보다 잘되거나 나은 사람을 공연히 미워하고 싫어하다.

예) 진히는 춤을 잘 추는 언니를 **시샘했다**.

### 유년

어린 나이나 때.

예) 소꿉친구들과 놀던 **유년** 시절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른다.

### 윗목

온돌방에서 아궁이로부터 먼 쪽의 방바닥. 불길이 잘 닿지 않아 ③  보다 상대적으로 차가운 쪽이다.

예) 차가운 **윗목**에 있지 말고 아랫목으로 내려오세요.

### 한기

추운 기운.

예) 창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들어와 **한기**가 느껴졌다.

④

따뜻한 기운.

예) 사랑방의 구들이 식어 방바닥의 ④  가 가셨다.



답 | ① 시 ② 소설 ③ 아랫목 ④ 온기

## 타전

전보나 ❶ 을 침.

예) 무전기가 고장 나서 타전이 불가능했다.

## 푹푹하다

생기가 있고 싱그럽다.

예) 신입생일 때 사진을 보니 친구들 모습이 푹푹하구나.

## 여울

❷ 이나 바다 등의 바닥이 얇거나 폭이 좁아 물이 세게 흐르는 곳.

예) 징검다리가 여울의 얇은 곳을 따라 뚝뚝뚝 넘어 있다.

## 년지시

드러나지 않게 은근히.(시 <고향>에서 '년즈시'로 쓰임)

예) 나는 책을 읽고 있는 민준이에게 년지시 다가갔다.

❸

서로 거스르지 않는 사이라는 뜻으로, 허물이 없는 아주 친한 사이를 이르는 말.

예) 현지와 지수는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같이한 ❸ 이다.

❹

한창 바쁠 때에 쓸데없는 일로 남을 귀찮게 구는 짓.

예) ❹ 로 방해하는 것보다 도와주는 게 상책이다.

## 수작

남의 말이나 행동, 계획을 낚잡아 이르는 말.

예) 나는 오빠의 뻘뻘 보이는 수작에 넘어갔다.



답 | ❶ 무전 ❷ 강 ❸ 막역지간  
❹ 뺨이질

# 필수 어휘 체크 전략

## 생색

남에게 도움을 주고 그것을 ❶ 하거나 체면을 세우는 태도.

예 동생은 내게 생일 선물을 주고 나서 한동안 생색을 내었다.

## 기색

마음의 작용으로 얼굴에 드러나는 빛.

예 삼촌은 약속 시간에 늦어 놓고도 미안한 기색이 없었다.

## 쌔근쌔근

고르지 아니하고 가쁘게 자꾸 숨 쉬는 소리. 또는 그 모양.

예 찬우는 지각하기 1분 전에 교실에 와서 쌔근쌔근 가쁜 숨을 쉬었다.

## 복장

❷ 의 한복판.

예 실수로 친구의 복장을 쳤다.

## 비슬비슬

자꾸 힘없이 비틀거리는 ❸ .

예 길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비슬비슬 걸어가셔서 보기에 몹시 불안했다.

## ❹

어떤 일이 벌어지는 바람에 자기도 모르게 정신이 얼떨떨한 상태.

예 나는 당황하여 ❹ 에 엉뚱한 말을 하였다.

## 명색

걸로 내세우는 구실이나 이유.

예 도시를 재정비한다는 명색으로 집들을 허물고 있다.



답 | ❶ 자랑 ❷ 가슴 ❸ 모양 ❹ 얼김

## 찬미하다

아름답고 훌륭한 것 등을 높여 말하며 칭찬하다.

예) 우리 조상들은 자연물을 찬미하는 시가를 많이 지었다.

## 예견하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거나 ① .

예) 감독은 선수들의 상태를 보고 승리를 예견하였다.

## 호송

① 목적지까지 보호하여 옮김. ② ②  를 지은 사람을 목적지까지 감시하면서 데려가는 일.

예) 범인을 경찰에 호송하였다.

## 매복

상대편의 동태를 살피거나 불시에 공격하려고 일정한 곳에 몰래 숨음.

예) 경찰은 범인을 잡으려고 범인 집 앞에서 매복을 하였다.

## 일가

① 한집에 사는 ③ . ② 성이 같고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들.

예) 추석을 맞아 오할머니 덕에 일가가 모두 모였다.

## 갈취하다

남의 것을 강제로 ④ .

예) 우리 동네에 현금을 갈취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어.

## 지척

아주 가까운 거리.

예) 우리 집에서 학교까지는 지척이다.



답 | ① 짐작하다 ② 죄 ③ 가족  
④ 빼앗다

# 필수 어휘 체크 전략

## 필수 어휘 테스트

### 01 단어의 뜻을 바르게 연결하시오.

(1) 화자 ·

· ㉠ 시에서 시인을 대신하여 말하는 이

(2) 서술자 ·

· ㉡ 소설에서 독자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이

### 02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쓰시오.

(1) 지금 나는 나의 , 나의 당숙 때문에 울고 있는 나를 종종 발견하게 된다.  
한집안, 혈연관계가 있는 같은 집안.

(2) 점순이는 가는  이 없고, 썩근썩근하고 심상치 않게 숨소리가 거칠어진다.  
마음의 작용으로 얼굴에 드러나는 빛.

(3) 귀뚜르르 뚜르르 보내는  소리가 / 누구의 마음 하나 울릴 수 있을까.  
전보나 무전을 칭.

### 03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를 보기에서 고르시오.

보기

할머니: 거기 (  )은 아궁이에서 떨어져 차가울 텐데.  
손님: 온돌이 좋아서 그런지 (  )도 별로 안 차요.

### 04 밑줄 친 부분의 뜻과 비슷한 것은?

계집애가 나물을 캐러 갔으면 갔지 남 울타리 엮는 데 쌩이질 을 하는 것은 다 뭐냐.



답 | 01 (1) ㉠ (2) ㉡ (1) 일가 (2) 기색  
(3) 타전 03 윗목 04 ㉡

- ① 놀라는 것                      ② 귀찮게 구는 것                      ③ 도와주는 것
- ④ 모른 척하는 것                      ⑤ 친절하게 대하는 것



## 05 뜻풀이에 해당하는 단어를 고르시오.

- (1) (온기, 한기): 추운 기운.  
 (2) (유년, 청년): 어린 나이나 때.

## 06 ( ) 안에서 글의 흐름에 어울리는 단어를 고르시오.

감사는 전국에 체포령이 내린 길동을 잡아 (시샘, 호송)하였고, 조정에서는 군사들을 남대문 부근에 (매복, 예견)시켰다.

## 07 다음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보기'에서 고르시오.

「보기」 비슬비슬      막역지간      썩근썩근      년지시

백석: 전 평안도 정주가 고향인데, 혹시 아무개 씨를 아시나요?  
 의원: 알고말고요. 그 아무개랑은 고향 친구로 ( )이라네.

## 08 「보기」를 참고하여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의 기본형을 쓰시오. (기본형은 '-다' 형태로 쓰는 것임.)

「보기」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다.

아버지는 내 편지를 엄마가 '( )'고 한 부분을 결코 취소하지 않았다. 그런데 엄마는 '( )'는 말이 뭐가 어쨌다고 그 말에 그렇게 분개하는 것일까.



# 필수 어휘 체크 전략

## 필수 어휘 모음

### 표현

느낌이나 생각 등을 말, 글, 몸짓 등으로 나타내어 겉으로 드러냄.

예 할아버지가 나에게 용돈을 주는 것은 애정 **표현**의 한 방법입니다.

### 운율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가락.

예 나는 **운율**이 잘 느껴지는 시를 읽으면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아.

### 반어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❶ [ ] 되게 나타내어 강조하는 표현.

예 내가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엄마는 “잘했다.”라고 **반어**로 말했다.

### 역설

겉보기에는 모순되지만 그 속에 중요한 사실이나 ❷ [ ] 을 담은 표현.

예 수필 <열보다 큰 아홉>의 제목에는 **역설**의 표현이 담겨 있다.

### 모순

어떤 사실의 앞뒤, 또는 두 사실이 이치상 어긋나서 서로 맞지 않음을 이르는 말.

예 “구린내가 향기롭다.”는 겉보기에는 **모순**된 표현이다.

### 풍자

개인이나 사회의 부정적 현상, 모순 등을 간접적으로 ❸ [ ] 하기 위해 웃음을 사용하는 표현.

예 그의 소설은 **풍자**를 통해서 인물의 행동이나 사회의 모습을 비판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 4 [ ]

연극이나 영화의 대본으로 만들거나 다른 나라 말로 고치기 전의 원래 작품.

예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❹ [ ] 웹툰도 함께 인기를 끌고 있다.



답 | ❶ 반대 ❷ 진실 ❸ 비판 ❹ 원작

## 재구성

한 번 구성하였던 것을 다시 새롭게 구성함.

예) 역사적 사건을 만화로 재구성하여 흥미롭게 보았다.

## 변형

형태나 모양, 성질 등이 달라지거나 달라지게 함.

예) 세탁기를 돌릴 때 형태가 쉽게 변형되는 스웨터 등은 조심해야 합니다.

## 나무라다

상대방의 ❶ 이나 부족한 점을 꼬집어 말하다.

예) 길에서 아이 엄마가 아이를 호되게 나무라고 있었다.

## 구린내

똥이나 방귀 냄새와 같이 고약한 ❷ .

예) 은행나무 열매에서 구린내가 지독하게 났다.

## 여물다

과실이나 곡식 등이 알이 들어 탄탄하게 잘 ❸ .

예) 감이 벌써 먹음직스럽게 여물었구나!

## 아름

두 팔을 둥글게 모아서 만든 둘레.

예) 선생님께서 꽃다발을 한 아름 안고 교실에 들어오셨다.

## ❹

근무하는 곳을 옮김.

예) 어머니가 ❹ 을 가게 되어 부모님이 주말 부부가 되었다.



답 | ❶ 잘못 ❷ 냄새 ❸ 익다 ❹ 전근

# 필수 어휘 체크 전략

## 허풍

①  보다 지나치게 부풀려 믿기 어려운 말이나 행동.

예 동생은 자기가 훌륭한 인품을 지녔다면서 **허풍**을 떨었다.

## ②

강렬하고 갑작스러워 누르기 어려운 감정.

예 나는 치솟는 분노의 **②**을 가라앉히려 애썼다.

## 분분하다

여럿이 한데 뒤섞여 어수선하다.

예 꽃잎이 **분분하게** 떨어졌다.

## 녹음

푸른 잎이 울창하게 우거진 수풀. 그 수풀의 그늘.

예 이 채색하는 숲의 짙은 **녹음**을 잘 표현했네.

## 하롱하롱

작고 가벼운 물체가 떨어지면서 잇따라 흔들리는 **③**.

예 꽃잎이 **하롱하롱** 떨어지는 모습이 아름답게 보였다.

## 환곡

조선 시대에, 각 고을에서 봄에 백성들에게 **④**을 꾸어 주고 가을에 이자를 붙여 거두어 두던 일. 또는 그 곡식.

예 조선 시대에 정선의 한 양반이 가난하여 **환곡**을 감지 못해 곤궁에 빠졌다.

## 매매

물건을 팔고 사는 일.

예 불법 중고 **매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답 | ① 실제 ② 격정 ③ 모양 ④ 곡식

①

제멋대로 굴며 매우 난폭함.

예) 편의점에서 손님이 갑자기 물건을 던지며 ①을 부렸다.

## 맹랑하다

생각한 바와 달리 허무하다.

예) 나는 갈수록 일이 맹랑하게 되어 간다고 생각했다.

## 두엄

풀, 짚 또는 가축의 배설물 따위를 썩힌 ②.

예) 시골 길을 지나가는데 밭에서 두엄 냄새가 고약하게 났다.

## 치달다

① 위쪽으로 ③. 또는 위쪽으로 달려 올라가다. ② 힘차고 바르게 나아가다.

예) 멧돼지가 도로를 벗어나 산 중턱을 향해 치달았다.

## 어혈

타박상 따위로 살 속에 피가 맺힘. 또는 그 피.

예) 찬수는 퍼렇게 어혈이 선명한 눈두덩을 달걀로 문질렀다.

## 탐관오리

백성의 재물을 탐내어 빼앗는, 행실이 깨끗하지 못한 ④.

예) &lt;춘향전&gt;에 나오는 변사또는 백성의 재물을 갈아먹는 탐관오리였다.

## 모질다

마음씨나 말씨나 행동이 몹시 쌀쌀맞고 독하다.

예) 옆에서 지켜보니 현아는 마음이 모질지 못한 성격이다.



답 | ① 횡포 ② 거름 ③ 달리다  
④ 관리



# 필수 어휘 체크 전략

## 필수 어휘 테스트

**01** 밑줄 친 단어에 해당하는 뜻을 '보기'에서 찾아 기호로 쓰시오.

「보기」

- ㄱ.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반대되게 나타내어 강조하는 표현.
- ㄴ. 겉보기에는 모순되지만 그 속에 중요한 사실이나 진실을 담은 표현.
- ㄷ. 개인이나 사회의 부정적 현상, 모순 등을 간접적으로 비판하기 위해 웃음을 사용하는 표현.

- (1) 할머니가 손자에게 ‘우리 못난이’라며 반어로 말하였다.
- (2) <양반전>은 조선 후기 양반의 모습을 풍자한 고전 소설이다.
- (3) ‘아아, 님은 갔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에는 역설이 쓰였다.

**02** ( ) 안에서 글의 흐름에 어울리는 단어를 고르시오.

- (1) 너는 호랑이 선생님이 (출근, 전근) 가신다는 말을 듣고 눈물을 절끔거렸지.
- (2) “차갑지만 따뜻한 엄마의 손”은 겉보기에 (모순, 과장)된 표현을 사용해 인상 깊었어.

**03**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를 '보기'에서 고르시오.

「보기」

    꽃내    구린내    비린내    단내

은행나무 열매에서 ( )가 난다  
주의해 주세요 ( )가 향기롭다



**04** 밑줄 친 말을 대신하여 쓸 수 있는 것은?

양반은 집이 가난해서 해마다 군에서 관의 곡식을 빌려다가 먹었는데, 몇 해가 지나고 보니 빌린 곡식이 일천 섬에 이르렀다.



- ① 두엄                                      ② 녹음                                      ③ 허풍
- ④ 환곡                                      ⑤ 재구성

답 | 01 (1) ㄱ (2) ㄷ (3) ㄴ  
02 (1) 전근 (2) 모순 03 구린내  
04 ④

## 05 초성을 참고하여 뜻풀이에 해당하는 알맞은 단어를 쓰시오.

- (1)   :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가락.  
 (2)   : 연극이나 영화의 대본으로 만들거나 다른 나라 말로 고치기 전의 원래 작품.

## 06 밑줄 친 단어의 뜻으로 바른 것은?

두꺼비 과리를 물고 두엄 위에 치달아 앉아

- ① 맹랑하게 놀다      ② 천천히 여물다      ③ 뛰어 올라가다  
 ④ 거칠게 표현하다      ⑤ 모질게 행동하다

## 07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보기'에서 고르시오.

「 보기 」

횡포      어혈      아름      출혈

환자: 발목을 빼어서 (            )이 선명하게 생겼어요.

한의사: 침으로 (            )을 빼 보도록 하죠.

## 08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쓰시오.

조선 후기에는 백성들이  에게 큰 고통을 받

재물을 탈내어 빼앗는, 행실이 깨끗하지 못한 관리.

았다. 시조 <두꺼비 과리를 물고>는 이들에게 고통을 받은

백성들이 지었다고 볼 수 있다.



# 필수 어휘 체크 전략

## 필수 어휘 모음

### 표기

문자 또는 음성 기호로 언어를 표시함.

예) 간판의 **표기**가 맞춤법에 어긋나네.

### 원리

사물의 본질이나 바탕이 되는 **1**.

예) 이 기계의 작동 **원리**를 알고 싶다.

### 받침소리

음절의 구성에서 마지막 소리인 자음.

예) '낫, 낫, 난, 날, 낫'을 발음하면 **받침소리**가 모두 [ㄷ]으로 들려 단어가 구분이 되지 않는다.

### 대표음

자음이 **2**으로 쓰일 때 하나의 자음으로 발음되는데, 그 하나의 자음을 이르는 말.

예) 받침소리 'ㄱ, ㅋ'은 모두 **대표음** [ㄱ]으로 발음한다.

### 홀받침

하나의 **3**으로 된 받침.

예) '박', '정'은 모두 **홀받침**으로 된 단어이다.

### 쌍받침

같은 자음자가 겹쳐서 된 받침.

예) '뉘시'를 쓰려면 '뉘'으로 **쌍받침** 'ㄱ'을 써야 해요.

### 4

서로 다른 두 개의 자음으로 된 받침.

예) '닭', '넋'은 모두 **4**이 쓰인 단어이다.



답 | 1 이치 2 받침 3 자음  
4 겹받침

## 음절

‘구름’에서 ‘구’나 ‘름’ 같이 한 번에 발음할 수 있는 소리마디.

예)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모르겠으니 한 음절씩 천천히 읽어 주세요.

## 어말

단어의 ① .

예) 받침 ‘가’는 어말에서 [ㄱ]으로 발음된다. 즉 ‘밖’은 [박]으로 발음한다.

## 어간

② 와 형용사가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

예) ‘먹고’, ‘먹니’에서 ‘먹-’은 어간이다.

## 어미

③ 뒤에 붙어서 변하는 부분.

예) ‘먹고’, ‘먹니’에서 ‘-고’, ‘-니’는 어미야.

## 접미사

어근이나 단어의 뒤에 붙어 새로운 단어가 되게 하는 말.

예) ‘선생님’의 ‘-님’, ‘개구쟁이’의 ‘-쟁이’는 접미사이다.

## ④ 형태소

구체적인 대상이나 동작, 상태를 표시하는 형태소.

예) ‘민수가 책을 읽었다.’에서 ‘민수’, ‘책’, ‘읽-’은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④ 형태소이다.

## 꺾

한쪽으로 트여 나가는 방향이나 길.

예) 강물이 한 꺾으로만 흐른다.



답 | ① 끝 ② 동사 ③ 어간 ④ 실질

# 필수 어휘 체크 전략

## 발화

머릿속 생각이 ① 언어로 나타난 것.

예) 발화가 모여 담화를 이룬다.

②

서로 이어져 있는 관계나 연관된 흐름.

예) 그 사람은 일의 앞뒤 ② 은 전혀 모르면서 무조건 참견하기를 좋아했다.

## 상제

전에 없던 것을 처음으로 만들거나 정함.

예) 훈민정음은 세종 대왕이 상제한 우리글이다.

## 상형

어떤 물건의 ③ 을 본뜬.

예) 한글의 'ㅁ'은 입 모양의 상형을 통해 만들었다.

## 가획

원글자에 ④ 을 더함.

예) 한글은 기본 글자를 바탕으로 하여 다시 가획의 원리를 적용해 만들었다.

## 합성

둘 이상의 것을 합쳐서 하나를 이룸.

예) 영지는 고양이 얼굴과 자신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친구에게 보냈다.

## 낫다

병이나 상처 등이 없어져 본래대로 되다.

예) 친구의 감기가 다 나오면[나오면] 함께 여행 가자.



답 | ① 음성 ② 맥락 ③ 형상 ④ 획



## 낳다

배 속의 아이, 새끼, 알을 몸 밖으로 ❶ .

예) 이모, 딸을 낳으면[나오면] 이름을 뭐라고 지을 거예요?

## 마치다

하던 일이나 과정이 ❷ . 또는 그렇게 하다.

예) 진아, 수업 마치고[마치고] 도서관에서 숙제할래?

## 맞히다

문제의 답이 틀리지 않게 하다.

예) 문법 시험에서 한 문제만 맞히고[마치고] 모두 틀렸다.

## 반드시

틀림없이 ❸ .

예) 이번에는 반드시[반드시] 내가 고른 책을 끝까지 읽겠다고 다짐했다.

## 반듯이

비뚤어지거나 굽거나 흐트러지지 않고 바르게.

예) 엄마는 내게 허리를 반듯이[반드시] 하고 앉으라고 항상 잔소리를 하신다.

## 부치다

편지나 물건 등을 ❹ .

예) 할머니는 김장 김치를 포장하여 결혼한 딸에게 택배로 부치었다[부치었다].

## 붙이다

무엇에 닿아서 떨어지지 않게 하다.

예) 형은 상처 난 무릎에 반창고를 붙이였다[부치었다].



답 | ❶ 내보내다 ❷ 끝나다 ❸ 꼭  
❹ 보내다

# 필수 어휘 체크 전략

## 필수 어휘 테스트

**01** 뜻풀이에 해당하는 단어를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

보기

반침소리      겹받침      쌍받침      홑받침

- (1) (          ): ‘ㄱ, ㄴ, ㄷ’과 같이 하나의 자음으로 된 받침.  
(2) (          ): ‘ㄱ, ㅋ, ㆁ’과 같이 서로 다른 두 자음으로 구성된 받침.

**02** '보기'를 참고하여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를 쓰시오.

보기

사물이나 본질의 바탕이 되는 이치.

- 표준 발음법의 (          )음/를 설명한 표준 발음 제1항을 살펴볼까요?
- ‘훈민정음’은 오늘을 그 창제 (          )의 과학성을 인정받아 더 많은 찬사를 받고 있다.

**03**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쓰시오.

(1) 단어를 정확하게 발음하고  하는 것은 우리말, 우리글을 사용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 문자 또는 음성 기호로 언어를 표시함.

(2)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주고받는  의 연속체를 담화라고 합니다. 머리속 생각이 음성 언어로 나타난 것.

**04**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단어를?

‘사물 따위가 서로 이어져 있는 관계나 연관’이라는 뜻으로, 담화에서 담화의 흐름이나 의미 해석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답 | **01** (1) 홑받침 (2) 겹받침 **02** 원리  
**03** (1) 표기 (2) 발화 **04** ③

- ① 굽                          ② 음절                          ③ 맥락  
④ 실질                        ⑤ 접미사

05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쓰시오.

선생님: 세종 대왕은 누구나 쉽게 익혀 읽고 쓸 수 있는 새로운 문자를            했는데요. 이 문자는 무엇일까요? 전에 없던 것을 처음으로 만들거나 정함.



학생: 훈민정음입니다.

06 밑줄 친 부분과 바꿔 쓰기에 적절한 것은?

훈민정음에서 자음자를 만든 원리는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는 점이고, 모음자를 만든 원리는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는 점이다.

- ① 소형하여                      ② 중형하여                      ③ 상형하여
- ④ 기형하여                      ⑤ 조형하여

07 밑줄 친 단어의 뜻으로 바른 것은?

한글의 자음자 가운데 ‘ㅋ, ㆁ, ㅌ, ㅍ, ㅊ, ㅍ, ㅆ, ㅎ’은 기본자보다 소리가 세짐에 따라 기본자에 가획하여 만들었다.

- ① 획을 빼어                      ② 선을 그어                      ③ 점을 찍어
- ④ 획을 더하여                      ⑤ 동그라미를 그려

08 | 보기 |를 참고하여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를 쓰시오.

| 보기 |                       둘 이상의 것을 합쳐서 하나를 이룸.

한글의 모음자는 기본자를 (                      )하여 만들었다. 한글의 모음자 가운데 ‘ㅜ, ㅓ, ㅗ, ㅛ, ㅜ, ㅠ’는 기본자인 ‘ㅡ’와 ‘ㅣ’에 ‘ㆍ’를 한 번 (                      )하여 만들었고, ‘ㅝ, ㅟ, ㅞ, ㅟ, ㅞ, ㅟ’는 ‘ㅜ, ㅓ, ㅗ, ㅛ’에 ‘ㆍ’를 한 번 더 (                      )하여 만들었다.

# 필수 어휘 체크 전략

## 필수 어휘 모음

### 대상

어떤 일이나 행동의 상대나 목표가 되는 사람이나 물건.

예) 이 책은 어른과 어린이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쓴 이야기입니다.

### 구체적

실제적이고 ① 한 것.

예) 중간고사 일정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 견주다

둘 이상의 사물을 질이나 양 따위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기 위하여 서로 대어 보다.

예) 옷가게에서 코트 두 개를 거울에 대보며 **견주었다**.

### 차이

서로 같지 않고 ② . 또는 서로 다른 정도.

예) 방송국에서 영화배우를 보았는데 화면과 별 **차이**가 없었다.

### 요소

무엇을 이루는 데 반드시 있어야 할 중요한 성분이나 조건.

예) 키가 크고 싶다면 5대 영양 **요소**를 고루 갖춘 식사를 해야 해.

### ③

어떤 작용을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달하는 물체. 또는 그런 수단.

예) 그가 그린 작품들이 신문과 방송 ③ 에 소개되었다.

### 의도

무엇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나 ④ .

예) 글을 읽을 때는 글쓴이가 어떤 **의도**로 썼는지를 파악하며 읽으면 좋아.



답 | ① 자세 ② 다름 ③ 매체 ④ 계획

개선

부족한 점, 잘못된 점, 나쁜 점 등을 고쳐서 더 좋아지게 함.

예) 이번에 마을 버스 노선이 **개선**되어서 교통이 무척 편해졌어.

호응

앞에 어떤 말이 오면 거기에 응하는 말이 따라옴. 또는 그런 일.

예) '결코'가 오면 뒤 서술어에 '아니다', '없다' 따위의 부정하는 말이 와야 **호응**이 된다.

어법

①  의 일정한 법칙.

예) '꽃이'는 소리 나는 대로 '꼬치'라고 쓰면 정확한 뜻을 알 수 없어. 그래서 '꽃이'라고 **어법**에 맞도록 써야 한다는 원칙이 더해진 거야.

관점

사물이나 현상을 보고 생각하는 개인의 입장 또는 ② .

예) 수지와 재민이는 하나의 그림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③

남의 감정, 의견, 주장 따위에 대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낌 또는 그렇게 느끼는 기분.

예) ③  하며 대화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생각에 자신도 그렇다고 느끼면서 대화하는 것을 말해.

감정

일이나 대상에 대하여 마음에 일어나는 느낌이나 기분.

예) 내 동생은 **감정**이 풍부해서 작은 일에도 잘 웃고 잘 운다.



의사소통

가지고 있는 ④  이나 뜻이 서로 통함.

예) 말하는 이는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내어 말하고, 듣는 이는 말하는 이의 말에 적절하게 반응하면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답 | ① 말 ② 태도 ③ 공감 ④ 생각

# 필수 어휘 체크 전략

## 맞장구

남의 말이 옳다고 호응하거나 동의하는 일.

예 친구가 내 말을 들으며 **맞장구**를 쳐 주어서 신나게 말을 했다.

## 반응

어떤 자극에 대하여 일정한 동작이나 태도를 보임. 또는 그런 동작이나 태도.

예 우리나라 드라마가 해외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한다.

## 기승

① 이나 힘 따위가 성해서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음.

예 겨울만 되면 정전기가 **기승**을 부린다.

## 지지하다

어떤 사람이나 단체 등이 내세우는 주의나 의견 등에 ② 하고 따르다.

예 당선자는 자신을 **지지해** 준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 ③ 하다

늘어서 많아지다. 또는 늘려서 많게 하다.

예 환기를 안 했더니 벽에 곰팡이가 ③ **했다**.

## 과도하다

정도가 지나치다.

예 이번 달에 **과도하게** 돈을 썼어.

## 방류하다

큰 물고기로 자라도록 어린 물고기를 강물에 ④ .

예 어부는 잡힌 새끼 물고기를 다시 바다에 **방류**하였다.

## 어획

바다나 강에 사는 생물을 잡거나 캐냄. 또는 그 생물.

예 바다에 나가서 **어획** 활동을 할 때는 거친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답 | ① 기운 ② 찬성 ③ 증식  
④ 놓아주다

**필수 어휘 테스트**

**01** 뜻풀이에 해당하는 단어를 바르게 연결하십시오.

- (1) 사물이나 현상을 보고 생각하는 개인의 입장 또는 태도.      • ㉠ 공감
- (2) 남의 감정, 의견, 주장 따위에 대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낌, 또는 그렇게 느끼는 기분.      • ㉡ 관점

**02** 뜻풀이와 초성을 참고하여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쓰시오.

매일 불별더위가 (                      )을 부려 밖에서 키우던 화초의 잎사귀가 말라 버렸다.

㉠ ㅅ : 기운이나 힘 따위가 성해서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음. 또는 그 기운이나 힘.

**03**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쓰시오.

- (1) 현주는 회원들이 압도적으로 하여 회장에 당선되었다.  
어떤 사람이나 단체 등이 내세우는 주이나 의견 등에 찬성하고 따른다.
- (2) 나는 친구의 말에 고개를 끄덕여 가며 을/를 쳐주었다.  
남의 말이 옳다고 호응하거나 동의하는 일.

**04** '보기'를 참고하여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의 기본형을 쓰시오.

「 보기 」  
 정도가 지나치다.

- (                      )분비된 피지는 먼지나 때 등과 함께 굳어서 모공 안에 쌓인다.
- 해양 수산부는 (                      ) 어획 등으로 사라진 명태 자원을 회복하기 위한 연구를 했다.

답 | 01 (1)㉠(2)㉡ 02 기승  
 03 (1)지지(2)맞장구 04 과도하다



05 뜻풀이에 해당하는 단어를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

보기  
감정      매체      의사소통      대상

- (1) (            ):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뜻이 서로 통합.
- (2) (            ): 어떤 작용을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달하는 물체. 또는 그런 수단.


06 밑줄 친 단어와 바꿔 쓰기에 알맞은 것은?

모공 안에 쌓인 피지에 세균이 쉽게 증식하여 여드름이 생기는 것이다.

- ① 견주어                      ② 개선하여                      ③ 눌러붙어
- ④ 떨어져서                      ⑤ 불어나서

07 밑줄 친 단어의 의미에 해당하는 의미를 '보기'에서 고르시오.

보기  
 가. 모아 둔 물을 흘려 보내다.  
 나. 큰 물고기로 자라도록 어린 물고기를 강물에 놓아준다.



2년 전 양식하여 방류한 어린 명태가 속초 앞바다에서 잡혔다.

08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단어는?

'수산물을 잡거나 채취함. 또는 그 수산물'이라는 뜻으로, '고기잡이'로 바꾸어 쓸 수 있다.

- ① 획득                      ② 이득                      ③ 어획
- ④ 어중                      ⑤ 치어

답 | 05 (1) 의사소통 (2) 매체 06 ⑤  
07 나 08 ③